
第79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都市整備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5年8月18日(金) 午前11時

議事日程

1.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主要業務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主要業務報告의件 ... 2面

(11時 16分 開議)

○委員長 金錫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9回 臨時會 第2次 都市整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전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大公園은 서울시에서 管理하는 公園 中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이곳은 우리 서울市民을 포함하여 全國에서 年間 약 750萬名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많이 利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利用客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市議員들이 公園管理의 重要性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大公園 現場에서 報告도 받고 現場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함으로써 利用市民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施設이 될 수 있도록, 委員 여러분과 執行部

關係公務員께서는 오늘 會議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議事進行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主要業務報告의件

(11時 18分)

○委員長 金錫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나오셔서 業務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長님, 報告에 앞서 저희 幹部를 간단히 인사시키겠습니다.

(幹部紹介:管理部長 金盛達, 動物部長 金正萬, 植物部長 李會鳳, 研究室長 權純鎬, 庶務課長 鄭漢杓, 運營課長 辛承春, 施設管理課長 朴柱男, 動物管理課長 朴鏞夏, 飼育1課長 金榮根, 飼育2課長 李學載, 診療課長 文玄七, 造景課長 金在翼, 植物管理課長 成河奉, 中隊長 張榮煥)

존경하는 金錫浩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第79回 臨時會를 맞아 저희 事業所를 訪問해 주신 委員님 여러분께 全 職員을 代表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千百萬 市民의 기대 속에 새로운 地方自治時代를 여는 委員님들의 當選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여러 委員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今年度에 推進한 主要業務를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95年 서울大公園 당면 主要業務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운 날씨에 서울大公園을 訪問해 주신 委員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서울大公園 發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錫浩;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國 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朴贊國 委員; 朴贊國 委員입니다.

먼저 公園의 設置目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自然保全이라든가 市民의 휴양, 건강, 정서관리 이런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朴贊國 委員; 그래서 저희들이 公共 福利增進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事業所 性格을 보면 公共福利를 目的으로 하는데 企業性이 즉, 黑字를 내지 않는 그런 선에서 企業性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豫算書를 보면, 歲入 歲出에 관한 部分을 보면 엄청난 赤字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赤字를 내라고 하는 데서는 분명히 내야죠. 그러나 이것이 조금 너무나 어떠한 趙淳 서울市長이 새로 오셔서 지금 經營마인드를 외치고 있는데 이 部分에 대해서 어떠한 對策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지금 趙淳 市長께서 오셔서 經營마인드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는 엄청난

지금 赤字를 보고 있는데 어떠한 經營改善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서울大公園은 우리 나라 公園 中에 가장 큰 公園이고, 지금 大公園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公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公園 政策의 어떠한 좌표를 說明해 주십시오, 公園政策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質問드린 것하고 두 번째 質問 거의 相衝된 部分인데 이런 部分에 대해서 說明을 좀 해주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大公園 所長으로 온 지 15個月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첫 지난 94年 5月 13日 發令받고 왔을 때 朴委員님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趙淳 市長님이 就任하시자마자 一聲이 經營마인드에 의한 組織管理, 저도 처음에 와서 民營化도 檢討해 봤고, 서울시 負債가 4兆가 넘기 때문에 여기 실제 서울시 財産은 202萬坪이 아니라 公園으로 指定된 것이 202萬坪이니까 전체 財産은 284萬坪입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 롯데, 현대의 社長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것을 팔면 서울시 負債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서울 李元鐘 市長하고 한 2兆원은 내가 갚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연일 檢討해 보고 유럽을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委員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世界 5大 都市 中에서 3大 都市에 속하는 서울시입니다. 그러면 公園은 뭐냐 委員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는 지금 動物園 入場料를 1,500원 받는다, 돌고래쇼를 110원 받는다, 저는 돈을 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민주국가, 福祉國家가 됩니까? 國家가 또한 가장 큰 서울시가 千餘萬 서울시민한테 쾌적한 공간을 提供해야 되겠다. 그런데 유럽 가보니까 自立度가 11% 내지 14%입니다. 저희들은 昨年에 와서 여기서

참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폭력배와 傷痍勇士와 政治人이 유착된 야시장을 撤去했습니다, 제가. 제 官舎에 저를 죽이겠다고 칼을 갖고 수십명이 왔습니다. 그 撤去 이후에 호랑이가 오고, 山林廳에서. 新商品을 開發해서 前年에 비해서 10%의 收入을 增大시켜서 33 %의 自立度を 향상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제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를 가보니까 거기 公園에 비해서는 自立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서 福祉國家를 지향할 때에는 돈을 안 받고 千餘萬 서울市지만 특히 靑少年들한테 스트레스 解消하기 위한 유일한 場所를 提供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나 조금 돈을 받음으로써 受益者負擔原則을 택해서 公園의 秩序도 維持하고 清掃上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골프장도 생각해 보고, 駐車場 民營化도 생각해 보고, 全體 民營化도 생각해 봤는데 한 6個月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생각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世界의 3大 都市인 서울에서, 서울市 豫算이 얼마인데 한 100億 未滿 赤字 보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千萬市民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짊어질 靑少年들의 가장 스트레스의 解消場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만든 것이 뭐냐 하면 經營改善 意志하고 公園 政策 좌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努力해서 94年 3月 20日附로 都市自然公園에서 都市近隣公園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問題가 생기느냐 하면 建築 建蔽率이 7倍 이상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經營 合理化, 소위 그래서 이번 昨年에 3億원을 豫算을 받아서 저희들이 學術用役審査에 넘겨서 慶熙大에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전반적인 것을 再檢討하는 것입니다. 과연 委員님, 참 제가

굉장히 감명 받은 것은 黑字를 내지 않는 선에서의 현명한 組織管理, 참 감명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來年 6月까지 經營에 대한 컨소시엄에서 發注된 데서 經營合理化, 全般的인 建物 再配置 이런 것을 再檢討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次的으로 實施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委員님들이 참 저와 우리 職員을 도와주실 것이, 우리 委員長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가장 큰 병폐가 뭐냐 하면 77個所의 賣店입니다. 이것이 지금여기 問題뿐만 아니라 서울市 東大門, 蠶室體育館 商街, 소위 既存 現時價하고 너무 다른 賃貸料를 받습니다. 賃貸料가 鑑定價인데, 저희들은 77個所에서 賃貸料 받는 것이 2億 3,000萬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公開入札할 경우는 제가 볼 때에는 몇 배 이상 더 받지 않겠느냐, 그래 이런 조그마한 努力을 통해서 서울市民의 稅세를 줄이겠다. 그러면서 서울市民 千餘萬한테 쾌적한 공간을 提供하겠다. 그래서 全職員들이 합심해서 昨年에 제가 赴任하고 1個月만에 言論에서 不可能하다고 판단했던 야시장 200餘 坪을 撤去했습니다. 그것이 하루 收入 5,000萬원 내지 7,000萬원 했습니다. 누가 撤去하려고 하겠습니까, 國家가 용인해 준 것인데. 그것하고 나서 하나 하나 秩序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委員長님 그때 많이 도와주고, 거의 잡아가서 그래도 今年에 하는 것이 經營改善이다, 그래서 綜合發展計劃을 樹立하자, 그래서 3億원을 받아서 用役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委員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經營合理化를 통한 黑字는 못하지만 黑字를 생각하는 즉, 經營마인드를 통한 組織을 管理하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간단히 報告드렸습시다만 저도 아들이 中3이고, 國民學校 6學年인데 갈 데가 없어요. 그

래서 제가 매일 가보는 靑少年修練場이 2萬 2,000坪인데 하루 3·5000名이 利用을 합니다. 실제 쓸 수 있는 敷地는1,000名도 안 됩니다. 때로 1,500名 들어가면 가 보면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비참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李會鳳 植物部長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린벨트에 목을 걸고 우리 淸溪山 밑에 20萬坪에 달하는 靑少年修練場 만들어 보자, 거기다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우리 아들, 우리 손자만은 여기 와서 만끽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뼈딱한 길로 안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主事業은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靑少年修練場을 擴大하면서 經營合理化를 통한 經營赤字를 최대한 解消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벌려면 간단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入場料가 1,500원인데 龍仁自然農園 5,000원입니다. 돌고래쇼가 여기 우리 어린이들 110원 받는데 어린이들 2,600원 받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20 내지 30배 적게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國家가, 서울市가 國民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外國은 안 받죠. 外國은 株主概念으로 운영합니다.

사실 돈을 벌려면 저수지에 인도어골프장하고 駐車場이 8萬坪인데 골프장하면 그 收入이 얼마입니까? 아, 그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왜, 公園을 버리겠구나 그래서 大學敎授님들 前職 高位層하고 굉장히 相議를 했습니다. 6對 4입니다. 하지 말라가 6이고 해라가 4이다, 안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駐車場 이런 것을 하고 우리가 주어진 여건 내에서 돈을 많이 받아 보고, 또 綜合發展計劃을 樹立해서 새로운 現代施設을 만들려면 今年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178億원이 들어가는 理由는 뭐냐면 골치아픈 것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여기 284萬

坪이 서울시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國有地가 있고, 私有地가 있고 農協땅이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매일 싸우는 것이 저수지 8萬餘 坪 흥안농조에 항상 是非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 이번 3,000 餘 萬坪 6億원을 받아서 補償합니다. 今年에 이것 補償하지, 또 제가 와서 보니까 動物圖에서 사육사 80名이 이따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에는 땀냄새가 몸에 배서 電鐵을 타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왜 그러냐 목욕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去年에 제가 李元鍾 市長 모셔와서 3億원을 받아내서 목욕탕을 짓습니다. 그 돈 모두 합하니까 今年 豫算이 去年보다 의외로 많이 늘었고, 來년에는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來년에 豫算 늘지 않는 대신 經營合理化를 통한 公開入札해서 收入도 몇 배 얻어들이고 하면 自立도가 40%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럼 세계에서 가장 큰 公園이면서 運營面에 있어서 세계에 있어서 너무 잘 한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런 대로 베스트는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質問에 答辯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委員님. 죄송합니다.

○朴贊國 委員; 첫 번째로는 經營合理化 改善意志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77個所 賣店에 관한 部分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靑少年修鍊場 擴大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 세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資料로 넘겨주십시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辛; 資料로 해서 朴委員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錫浩; 所長님께서서는 더 자세히 委員님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너무 소상하게 答辯해 주시는데 그렇게 안해도
委員이 다 알아듣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같은 內容의 質問
하실 委員 있으세요, 같은 內容. 없으시죠?

具哲會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具哲會 委員; 具哲會 委員입니다.

우리 젊은 所長님의 확고하고 능률한 答辯을 들으니까 마음
이 뿌듯합니다. 역시 열심히 하시는 所長님으로 생각이 됩니
다. 本委員이 그 동안에 우리 所長님 管理次元에 대한 제가
調査를 한 것을 質疑할테니까 答辯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듣자하니 우리 所長님께서 서울大公園을 의욕적으로
管理해 보겠다고 노력한 결과 아까도 答辯이 있었습니다만
公園 앞에 오래된 傷痍軍警 등을 위시한 잡상인을 정리해 주
서 잘 한다는 찬사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對策으로 10餘年 동안 運營하여온 사진부를 일시에 쫓아
내고 그 자리에 스낵코너라는 그런 賣店을 運營케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公園 內 職員 中에도
겉으로는 所長의 命을 따르는 척 하면서도 內部的으로 職員
管理 계층상 不協和音이 있는 것 같은데 所長은 이 問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公園管理는 都市公園法에서
定하고 있는 대로 都市自然景觀의 保護와 市民의 健康과 休
養 및 情緒生活의 향상을 위한 公共의 福祉增進에 그 目標를
두고 運營하고 있다고 答辯을 했고, 本委員도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公園管理에는 많은 豫算投入은 許容하면서 公園收益
에 대해서는 관대한 立場을 취하고 있는 것이, 市民을 위한
公共福利를 增進하고 情緒生活을 적극 保護하기 위한 것이라
고 하는데 所長 생각도 그러한지 答辯을 해 주시고, 그리고

利用市民의 不便事項을 들어보면 施設은 나아져가고 있는데 職員들이 不親切하고 公園의 賣店 等に 食品이나 서비스 利用料가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公園에서 자체적으로 利用市民들의 不便事項을 調査해 둔 記錄이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 市民의 休養과 情緒管理를 目的으로 公園에 갔다가 不親切과 마가지 料金を 理由로 公園을 외면한다면 公園管理所長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특히 賣店이나 서비스 料금이 시중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公園 自體에서 그 料金の 隔差를 調査해 본 일이 있으신지, 그 가격이 비싸다면 公園에서 賃貸料를 비싸게 받는데 原因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94年 8月에는 이들에게 公開競爭入札을 하겠다고 아까도 각서 징구하고 이런 問題가 나오던데 importo를 냈다가 같은 해 10月 9日 公園職員의 立會下에 매출고를 算定하여 賃貸料를 策定하겠다고 하고 사진부의 경우에는 2,900萬원 公證까지 해 놓고 같은해 11月 30日에는 強制로 公證覺書를 提出받아가는 등 公園에서 一관성이 없이 業者들은 管理하고 있는 것으로 確認되고 있는데 이들이 競爭入札로 자리를 물러서면 이들이 投資해 둔 便宜施設은 어떻게 되며, 이들의 生計對策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지, 결국 公園이 不親切하고 料금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이들 業者들이 언제 물러갈지 모른다는 불안심리 때문에 利用市民에게 불만으로 터지고 과격騷擾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所長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答辯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業務報告에서 提示한 바와 같이 綜合發展計劃을 樹立하고 있다는 報告를 받았는데 本委員이 提示한 業體委託販賣施設公開入札도 發展計劃 施行 以後에 實施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錫浩; 메모됐죠? 여러 가지 많은 質問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公職者들의 基本的인 자세가 뭐냐, 市民들한테 利用客들한테 不親切하다는 部分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염려스럽지만 利用客들한테 不親切하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部分이기 때문에 이 部分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所長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具委員長님 質問 잘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283名 職員이 열심히 勤務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組織이 너무 방대하고, 또한 1년에 1,000餘 萬名이 찾는 모든 市民들에게 다 만족스럽게 管理한다고 저는 자부할 수 없습니다.

委員長님 말씀대로 그러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한 精神教育을 통해서 是正토록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한 部長님들이 매일 全地域을 巡察하고 있습니다, 確認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안되는 것처럼 그런 면이 있으면 所長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是正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具委員長님 質問에 대해서 하나하나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낵코너에 있던 사진관을 撤去했다는 것은 너무 오해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냐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全國에서 가장 地方行政하는데 障礙物이었던 것이 不法無料序인, 소위 特定業體들 特殊集團들의 행태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 大公園 所長할 때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만은 내가 목숨걸고 해보자 해서 고심끝에 20日間 고민하고 깡패들 傷痍勇士들과 수십차례 1對 1로 만나면서 收入을 보니까 하루 성수기에는

7,000萬원까지 어떨때는 3,000, 야 어렵구나 특히 여기는 특수인까지 介入된 것을 느끼고 수많은 공갈협박을 받으면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무슨 問題가 생기냐면 100餘 名의 傷痍勇士들은 어떻게 生計對策을 해 줘야 될 것이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夜市場 200餘 坪에서 收入이 傷痍勇士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갔죠. 그래서 傷痍勇士들을 보니까 1級, 2級 많은데 1級은 양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눈이 빠진 사람들인데 그 때는 돈을 안 받고 해 줬습니다.

200餘 坪에서 夜市場, 민속촌 돈 안 받고 했는데, 그러면 合法的으로 해라, 너희들 최소한 살 것을 내 해 주겠다 그래서 夜市場이 생기니까 실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綜合案内所는 누가 賃貸를 안 들어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賃貸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는 收入도 없고, 不法建物과 不法行爲만 하니까 公園秩序는 개판되고 그래서 傷痍勇士들한테 合法的으로 해라 해서 夜市場 철거하면서 傷痍勇士들 협조로 자진 철거시키고 지금 綜合案内所 큰 建物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 30坪을 제가 주면서 거기 사진사가 있는 것을 옆으로, 희망하는 地域으로 가서 협조를 받아서 全體 公園運營上 해 준 것이지 강제로 사진사를 철거시켰다면 제가 그 社長한테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 公務員間的 不協和音問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보다 여기 있는 課長님, 部長님들이 저보다 연세가 20살, 10살 다 많으십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려서 그렇다면 人間性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아버지 같고 큰형님 같은 課長, 部長님들이 저를 위해서 獻身 努力하는 것을 볼 때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팀워크 면에서는 상당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不協和音이 있다면 앞으로는 是正토록 努力하겠습니다.

○具哲會 委員; 所長, 答辯 中에 죄송한데 지금 所長은 委員이 質疑한 內容을 答辯하셔야지 國民學校 先生같이 애들 놓고 이야기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質疑한 內容만 간단하게 하세요. 눈물 나오고 그런 이야기 여기서 할 필요 뭐 있어요.

○委員長 金錫浩; 계속하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料금이 비싸다는 問題는 아까 委員님 말씀대로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96年度에는 전부 公開入札합니다. 왜냐 하면 大公園에서 10餘年 동안 賣店을 運營하다 보니까 이것이 隨意契約이다, 特惠是非다 해서 매일 監査院, 議會, 輿論에서 계속 집중해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公開入札하라, 市長님이 바뀔 때마다 公開入札하라. 그래서 지난번 崔市長님이 바뀔 때에도 公開入札해라, 그래서 제가 崔市長님 만나서 95年度 公開入札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이것이 具委員님 말씀대로 10年間 運營한 既得權者도 있고, 이 분들이 撤去하려면 時間도 들고 해서 1年間 留保規定을 두고 96년부터는 公開入札하겠습니다 해서 市長方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公開入札은 누구나 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國民의 要望事項이죠. 그래서 이것은 綜合發展計劃과 公開入札은 無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부다 96年 公開入札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가지料金 關係는 委員님께서 참 적절히 指摘해 주셨는데 과연 公開入札하는 것이 바가지料金이냐, 公開入札하지 않고 隨意契約하는 것이 바가지料金이냐, 제가 볼 때에는 公開入札해서 自由競爭體制下에서 자기가 살려면 바가지料金도 못하고 物件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가지

料金 關係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러면 도대체 收入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全 賣店에 대해서 職員을 시켜서 한번 收入을 調査해 봤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는 賃貸料가 턱이 없죠.

그래서 公開入札은 政府方針이고, 또 서울市의 方針이고, 또 저도 公開入札하는 것이 隨意契約 하는 것보다는 特惠是非 및 組織管理次元에서 合理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96년부터는 公開入札 方案을 確定했던 것입니다.

公證覺書는 그러면 왜 徵收했느냐, 委員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公務員하고 商人하고는 근본의식이 다릅니다. 公務員은 자기가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지만 商人은 利權이 없는 곳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야시장을 撤去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야, 야시장보다도 77個所 賣店 撤去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구나, 合法的으로 하지만. 그래서 去年에 公證覺書를 徵收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實態調査한 것이 공갈 협박용은 아닙니다.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所長으로서 사죄드립니다.

委員님, 答辯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綜合發展計劃 마련되었나?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님께서는 綜合發展計劃 할 때에 公開入札할 의향은 없느냐 했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具哲會 委員; 좋아요, 할 수 없는데, 지금 중요한 대목을 答辯 안하셨어요. 利用市民들 不便事項을 調査해 둔 記錄은 없어요? 지금 아까 우리 所長님께서 하루의 利用客이 몇 천 명인데 그 利用客에게 쾌적한 공간을 提供해 주기 위해서 努力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 努力한 結果 不便하다고 利

用된 記錄을 남겨놓은 것이 있느냐? 어떠 어떠한 점이 不便하다, 利用客이.

○委員長 金錫浩; 무슨 內容이나 하면 무슨 不便한 部分을 거론했다든지, 建議事項 있죠? 市民들 建議事項. 그것이 바로 不便한 部分이거든. 그런 臺帳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일부 있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그것을 복사해서 나중에 書面提出해 주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감사합니다.

○具哲會 委員; 資料 提出해 주시고, 그리고 答辯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所長님께서서는 너무 과민신경이신 것 같아요.

業者 이야기만 나오면 모멸감을 갖는다, 이런 것은 答辯內容에 안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是正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우리 具哲會 委員 더 質疑하실 部分 없죠, 補充質疑. 지금 말씀하신 不便事項 接受 있으면 그 接受臺帳을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고, 또한 參考로 市長 指示事項 있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方針 받은 事項?

○委員長 金錫浩; 方針 받은 事項, 그것도 같이 提出해 주세요.

다음은 金周喆 委員, 質問해 주세요.

○金周喆 委員; 金周喆입니다.

오늘 所長께서 이 公園管理를 하기 위해 外國에 가서 外國의 실상을 파악하고 問題點이나 또 우리 千百萬 市民의 쾌적한 公園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努力을 했고, 또 경험을 살려

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높이 칭찬 드립니다. 그런데 이 公園 內의 賣店을, 애초에 여기에 賣店을 賃貸했을 때 그 賣店을 어떤 형태로 賃貸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使用하고 있는 것은 202萬坪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 80萬坪이 더 있는 部分을 가지고 그냥 放置하는 것보다는 이 公園을 서울市民이 活用하고, 아까 所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無料入場을 하는 것이 소원이다, 좋습니다. 그 80萬坪을 어떤 事業計劃書를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引受를 받아서 좋은 이 公園을 管理 내지는 赤字가 안 나는 民間資本을 投資해서라도 80萬坪에 대한 活用價値, 活用할 수 있는 計劃을 가지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公園 內에 動物 몇 個 種을 飼育하고 있으며, 숫자는 몇 個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公開入札이다, 公證이다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는 管理者와 營業하는 業者間의 見解差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이 公園內의 賣店이나 모든, 所長님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훌륭한 젊은 責任者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 公園內에 不合理的 政策이나 計劃은 없었는지 양심껏 答辯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錫浩;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金周喆 委員님 質問에 비슷한 質問이 있으면 해 주세요.

계속 答辯해 주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賣店 賃貸形態는 委員님 양해해 주시면 書面으로 提出 하겠습니다.

○金周喆 委員; 그냥 여기서 해요. 간단치 않아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지금까지 賣店이 들어오게 된 것은 처음에 84年度에 動物園이 開場된 5共 당시입니다.

그때 이런 一般人한테 준 것이 아니라 傷痍軍警會에서 하여튼 뭘 팔 수 있다 무조건 점령했습니다.

점령하고 나서 特定人들한테 팔았죠. 그러니까 不法轉賣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法으로 못하고 轉賣, 轉賣하다 보니까 골치 아파서 1年 單位 隨意契約된 것입니다. 그래서 不法의 延長이었습니다.

○金周喆 委員; 잠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公園이 생기자마자 5共에서 特惠가 온 것입니다. 傷痍軍人이라고 빙자를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資料를 所長님한테 提示를 해요, 제 가방에서 꺼내 가지고?

이것은 經營者가 그 동안에 보니까 너무나도 양심을 가지고 執行하는 過程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도 非合理的이었었다 하는 答辯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傷痍軍人이나 깡패나 이런 用語를 쓰지 말고 그 동안에 이 公園이 생기니까 너는 지금 豫編해서 너는 여기에서 그만두고 그거나 해 먹어라 하는 그런 特惠가 있었기에 所長한테 質問하는 것이지 傷痍軍人이나 깡패나 이런 얘기는 그 사람 과거의 前科나 그 사람이 國家有功냐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所長님께서 그 동안에 여기에 와서 業務把握을 1年 이상 했으니까 그래도 輿論이나 그 동안에 無許可 建物, 또 雜商人들 撤去하느라고 수고는 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이 公園 內에 있는 賣店 特惠事項을 소상히 밝혀달라 이것입니다.

○委員長 金錫浩; 所長, 무슨 얘기냐 하면 84年度에 公園을 開하면서 賣店이 들어왔을 것이예요. 그때에 들어올 때에 5共으로부터 特惠를 받아서 賣店을 賃貸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 部分을 밝혀 달라, 그런 內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資料가 準備 안 됐으면 다음에 그 資料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提出해 주고, 간략하게 經緯에 대해서만 答辯해 주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님, 말씀 깊이 알겠습니다.

당초 84年度에 公園이 動·植物園이 開場되자마자 援護福祉公團에서 管理토록 했죠, 政府에서. 그래 變更해서 85年度에 援護福祉公團에서 하도 말이 나니까 子會社를 만들어서 대원 관리라는 株式會社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個人들한테 個人的으로 賃貸를 했죠. 그리고 나서.....

○金周喆 委員; 그 部分이 特惠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저도 그 部分에 대해서는 委員님 이상으로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한 政府方針이나 지금 서울市, 全體 國民 輿望이 公開入札이기 때문에 그리고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것 具體的인 事項은 委員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書面으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所長님, 처음에 援護福祉公團에 全體的으로 委任해서 援護福祉公團에서 個別 또 分讓을 했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委員長 金錫浩; 그 다음에 問題가 생기니까 대원관리(주)를 만들어서 지금 運營해 오다 그 후에 어떻게 돌아갔어요? 그 후에 말씀 좀 해 보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대원관리(주)에서 個人들한테, 그러니까 실제 賣店의 所有主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運營하고 있죠.

○委員長 金錫浩; 우리 金周喆 委員님 좀 理解를 해 주시고,

이것 書面으로 提出해 달라고 그러고, 9월에 한번 또 業務報告 때 해 주시죠. 어때요 理解해 주시겠어요?

○김장주 委員; 書面答辯도 좋은데 說明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세요.

아니, 까놓을 것은 좀 까놓아. 우물우물하고 있어.

○金周喆 委員; 지금 所長님께서서는 과거의 償行을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 所長님이 이런 것을 國民 앞에, 서울市民한테, 제가 市民의 代表性을 가지고 質問한 것이고, 그 동안에 慣分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內容입니다.

○委員長 金錫浩; 所長님,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어차피 書面提出해 줄 것이니까, 書類로. 간략하게 여기에서 성실하게 答辯해 주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님 말씀대로 84年度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85年度에 다소 問題가 생기니까 援護福祉公團에 제가 調査를 해 보니까 돈이 갔다고 하는데 간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調査까지 했습니다. 또 質問書를 던졌습니다. 援護福祉公團에 너네 얼마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答辯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子會社를 대원관리(주)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원관리(주)에서 이제 자기 人脈, 아는 사람들한테 가게를 하나씩 하나씩, 알파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搜查次元 問題니까 所長이 모르겠는데, 또 받은 사람은 프리미엄을 받아서 또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10年間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不法 轉賣죠.

이것을 하다보니까 大公園 실제 收入은 많은데 大公園에 들어오는 돈은 굉장히 적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것을 解決하는 방법은 公開入札이다. 오자마자 公開入札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굉장했습니다. 참아보자, 그러다 前任 崔秉烈 市長 오셔서 公開入札해라 그래서 公開入札 나가려고 하니까 또 10年間 쌓였던 여러 가지 問題가 많았어요. 그래서 1年 留保期間을 두자 단, 1年 留保하는 대신 너희들 自進撤去하겠다는 覺書 提出하라 그래서 公證覺書を 提出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業者한테는 公갈협박으로 보이지만 行政當局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利權이 있는 곳 밀어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既得權 있기 때문에.

그래서 公開入札을 하면 小企業이 들어오든, 大企業이 들어오든 일단 서비스는 좋아질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서 朴贊國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收入 많이 늘리면 서울市民이 血稅를 그만큼 줄일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고, 또 지금 다 國民 輿望이 隨意契約하면 이것은 무조건 特惠 아니냐, 특히 專門技術이나 特殊技術 要求하는 곳은 隨意契約이지만 매점을 公開入札한다면 전부 이상하게 봅니다. 公開入札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차선인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96년에는 公開入札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事項은 書面으로 提出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주 委員; 언제 한다고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96年 1月 1日字로 새로운 公開入札해서 應札된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95年 11月頃에 入札公告 나가고 받아서 하죠.

○金周喆 委員; 그러면 대원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현재 있는 것은 다 끝납니다. 대원이 應札해서 最高價落札價格 하니까 5,000짜리 5億

원 써서 되면 서울시 收入은 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죠.

○委員長 金錫造; 所長님, 入札이란 누구나 競爭入札이기 때문에 參與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參與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入札해서 最高價를 쓰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下請을 주든 관계없다 그런 얘기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 점은 제가.....

○委員長 金錫浩; 下請을 줄 수 없는 것 아니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주면 不法이죠.

○委員長 金錫浩; 그렇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委員長 金錫浩; 그렇게 간단하게 하라고, 됐어요.

우리 金周喆 委員님, 아시겠습니까?

○김장주 委員; 김장주 委員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委員長 金錫浩; 같은 件입니까, 김장주 委員님?

○김장주 委員; 같은 件입니다.

○委員長 金錫浩; 그럼 김장주 委員님, 質問하세요.

○김장주 委員; 入札이라는 것이 꼭 해서 최선의 방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逆으로 지금까지 쌓여있던 問題를 解決하는 데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겠네요, 더 좋은 방법을 궁리하셨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利用客들에게 바가지料金を 誘發하는 그런 요소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提言컨데 우리 所長님이 여기 오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稱頌도 들었습니다. 엄청난,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아까 委員長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入札을 해서 그 놈 가지고 下請을 줄 수 없다, 不法이죠.

물론 所長이 不法을 많이 是正한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合法的이었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豫想되

는 不法을 公權力을, 行政力을 어디다 두고 눈 흰히 뜨고 도둑놈들한테 그것을 맡겨 놓고 뭘 여기서 잘했다고, 여러분들 공히 같이 責任지세요. 또 不法이니까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는 식의 얘기를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서울大公園은 그런 말 염치없어서 못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일은 處理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있는 것이고, 또 점차점차 解決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公開入札은 꼭 施行하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錫浩; 所長,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錫浩; 公開入札에 대한 意志를 굽히지 말라 하는 내용이죠, 김장주 委員님?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金委員님 감사합니다. 金周喆 委員님 나머지 答辯드리겠습니다.

아까 84萬坪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經營改善에 도움이 되는 方案이 없느냐는 質問인데, 84萬坪이 어디냐면 他自制時代가 되니까 저는 고민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84萬坪이 어디냐면 委員님 들어오시다 보면 果川에 들어오는 進入路 있지 않습니까, 進入路하고 競馬場 앞에 進入路 있지 않습니까, 그 進入路 7萬餘 坪이 서울시 땅입니다. 나머지 70餘 萬坪이 어디냐면 公園이 283萬坪이 淸溪山 꼭대기에 있습니다. 정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 꼭대기인데 그 꼭대기에서 果川쪽으로 70餘 萬坪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內에. 이것은 어떠한 經營合理化 차원에서 改善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委員님.

단지 앞으로 地自制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定着되어서 民主主義 礎石이 되겠지만 果川 主進入路, 副進入路 通過料를

받아야 될 것이냐, 이 問題도 고민인데 이것은 研究課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動物園 數는 366種 3,050餘 首됩니다. 公園開場 당시보다 상당히 줄었죠. 고민이 뭐냐면 10年 됐는데 動物의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호랑이가 25年인데 십몇년 되면 가 뉘키우니까 죽는 식으로 해서 每年 1億원 내지 2億원 豫算을 策定받아서 희귀동물, 결쌍동물 이런 것을 調達廳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錫浩; 홍진구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홍진구 委員; 홍진구 委員입니다.

88年 5月 1日 慰樂施設 서울랜드를 開場을 했죠. 그런데 지금 벌써 약 7年이라는 세월이 갔는데 우리 서울大公園에서는 海外의 랜드를 말이 見學 안 시킵니까? 또 시킨 일이 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모르겠습니다.

○홍진구 委員; 없죠. 스위스, 英國 다 얘기를 所長께서는 하던데 日本에 가서 보면 랜드에 얼마만큼 觀客이 오느냐면 사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무지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施設을 그만큼 잘 갖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를 몇 번 와봤어요, 봤는데 地形은 넓고, 施設은 어찌다 여기 저기해서 어디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전혀 몰라요. 완전히 여기 오면 촌놈이 돼 버려. 나는 그것을 느끼고 所長한테 建議事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하나 얘기를 하면 여기 영화관의 입체영화를 보면 日本 같은 데 보고 여기 와서 보면 水準以下예요. 입체영화 자체가 완전

水準以下라는 얘기에요.

日本の 랜드같은 데 가서 보면 동그랗게 해서 위 아래로 전체가 비행기가 가면 내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水準으로 올리는데 여기에는 무엇 무엇 있다는 展示效果만 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몇 몇 사람만 와도 이것은 便宜施設 提供한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서울市民이 아, 서울大公園에 가니까 참 좋더라,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이 덥고 그러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쐬러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에요. 사람을 많이 收容을 한다는 것은 그 收入面을 가지고 本委員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市民 전체가 누구든지 와서 愛用하고 여기 와서 풍류할 수 있는 體制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本委員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金正萬 動物部長님 계시는데 KBS동물의 왕국의 상당한 성과로 온 국민이 시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 서울大公園의 動物들도 구경하는 사람 전체의 숫자에서 몇 %인가 따진 적 있습니까? 사람이 별로 動物園에 안 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한 施設이라든가 그만한 動物確保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됐다고 本委員은 指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金正萬 部長께서는 그러한 韓國의 유명하신 분이지만 힘을 써서 動物園을 市民들이 많이 利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植物園도 그래요, 여기가 지금 202萬坪이라는 넓은 데 여기 저기 널려 있으니까 아주 觀覽客이 힘듭니다. 여기다 觀覽하려면 걸어다니느라 며칠 다녀도 다 못 다닐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休息을 하는 데도 그렇고 觀覽하는 데도 便宜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여기 서울大公園의 投資額이 서울시費로 1,502億원이 돼 있죠, 民間資本이?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1,050億원입니다.

○홍진구 委員; 1,500으로 알았는데 1,050億원,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전체가 1,500億원입니다. 民資 450億원 포함해서.

○홍진구 委員; 民資는 誘致를 할 때 어떤 條件으로 돼 있었는지요, 그 答辯을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갈 것이고 書面으로 民資를 誘致했을 때 어떤 條件이며, 어떠 어떠한 것에 民資誘致가 됐는지, 民資誘致는 어떤 방법으로 契約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資料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알겠습니다.

○홍진구 委員; 그리고 아까 제가 指摘한 대로 서울랜드에 서울市民이 와서 정말 서울大公園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야겠다, 정말 좋더라 이런 정도의 體制를 갖출 用意는 없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 한 가지를 指摘하자면 입체 영화 같은 것도 필름을 좋은 것, 수준 높은 것 갖다가 보이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럴 用意는 없는지 돈을 投資해서라도 온 市民이 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觀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노력하겠습니다.

民資業體 問題는 監督, 管理廳長 立場에서 委員님 말씀대로 協議를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왜냐 하면

民資는 자기들 利害와 관련된 問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워낙 龐大하고 複雜多端하니까 어떠한 휴식과 유희보다는 피곤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研究를 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公園 全體問題는 어차피 綜合發展計劃이 시작됐으니까 그 때 넣어서 명실공히 先進公園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錫浩; 白懿宗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白懿宗 委員; 우선 名牌는 누가 썼습니까? 가운데 字가 무슨 字입니까? 이런 字는 보지를 못했어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죄송합니다.

○白懿宗 委員; 白懿宗 委員입니다.

報告內容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所長님께 묻겠습니다.

白頭山 호랑이가 94年 7月 1日부터 12月 4日 약 5個月 동안에 우리 大公園에서 保有하면서 그 期間 중에 觀覽客數가 135萬 6,000名이 觀覽했다고 報告가 됐습니다.

前年同期 對比는 164%가 增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에 대단히 많은 觀覽客이 入場을 했다, 이렇게 보아 지는데 이러한 인기 있는 볼거리를 大公園에 誘致했을 경우에 가뜩이나 市民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이 大公園에서 이러한 인기 있는 品目を 誘致해서 많은 市民들이 觀覽을 하도록 한다면 대단히 효과적인 運營이 될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所長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이 大公園의 損益計算書가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答辯하시기 어려우시면 書面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猛獸飼料를 토끼고기에서 소고기로 代替하니까 아주 우리 公園에 쾌적한 公園분위기가 造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報告가 되어 있고, 또 年間 飼料費가 1億 3,000萬원 節減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토끼고기보다 소고기가 이렇게 싼 것인지 이에 대한 算出根據를 提示해 주시고, 또 그 동안에 이 토끼를 우리 公園에선 屠殺을 했다고 그랬는데 屠殺施設은 어떠했길래 屠殺을 하지 않으니까 公園의 분위기가 꽤 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施設이 없었는지에 대한 答辯을 함께 해 주시고, 이 토끼를 이 넓은 公園 內에서 飼育해서 飼料로 쓴다면 얼마만큼의 飼料費가 節減될 것인지 分析해서 資料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원두막 17棟을 제작하는 理由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利用을 市民들한테 하도록 할 것인지, 無償인지 有償인지 答辯주시고요, 이 公園敷地 補償事業에 대해서 42筆地 1萬 1,597m²를 흥안농조, 소위 이 땅을 賃貸해서 쓴다고 報告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땅을 賃貸했으며, 賃貸料는 또 언제부터 얼마나 냈는지 答을 주시고, 왜 賃貸料를 주고 있는지, 바로 買入을 해서 使用을 했더라면 얼마나 우리 市民의 稅세가 節減이 되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公園이 84年度에 開園이 되었습니다. 지금 1995年입니다. 약 11年이 되었죠. 11年 前에 이 땅을 買入을 했다고 그러면 대단히 地價가 賤을 것으로 思料가 되고, 10年 以後에 지금 현재 이 땅값은 대단히 비싼 땅값이 될 것으로 本委員은 思料가 됩니다. 왜 이러한 엄청난 稅세를 낭비할 수 있도록 방관 방조를 했는지 그에 대한 答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資料를 몇 가지 要請하겠습니다.

公園 內 販賣施設 契約書, 契約者 名單 寫本을 하나 해 주시고요, 公園 內의 動·植物 現況을 資料로 해 주십시오. 말하자

면 1年이면 動物들은 많이 繁殖을 하게 되고 또 죽게 되고 할텐데 그러한 現況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감사합니다.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참 답답한 것이 있다면 백두산 호랑이 같은, 히트상품이죠, 新商品開發을 위해서 努力하지만 마땅한 것이 없어서 그 외에 山林浴場 開場했고 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新商品開發이라는 것이 公園 內에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研究部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認問機關의 認問을 받아서 한번 努力을 해 보겠습니다.

○白懿宗 委員; 所長, 아침부터 지금까지 報告하는 所長의 태도는 대단한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報告를 하는 것으로 모양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성의라고 그러면 이 호랑이를 우리 公園에 다시 保有해서 볼거리로서의 觀覽客을 誘致할 수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그에 대한 答을 좀 해 주십시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본래 백두산 호랑이가 저個人 심정도 그렇고 참 많은 서울市民이 大公園에 있기를 사실 바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저희들이 推進한 것이 아니라 金泳三 大統領께서 中國 江澤民 主席을 만나러 갔을 때 山林廳에서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山林廳에서 施設이 없기 때문에 5個月間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管理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백두산 호랑이가 3세인데 4세가 나오기를 바라는 데 아마 같이 슴슴를 했는데 아직까지, 100日이면 새끼가 나오는데 아직 안 나오는 상태로 보니까 슴슴해도 效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誘致하는 方法은 努力은 해 보겠습니다만 山林廳이 안 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단 조

용한 데서 바로 二世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目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委員님.

○白懿宗 委員; 山林廳에서 지금 保有하고 있는 理由는 이런 大公園에서는 保有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또 있는 것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아닙니다. 저희들이 專門家도 많고 飼育士도, 거기는 저희들이 가서 教育을 시키는 곳입니다.

백두산 호랑이를 처음에 올 때에 政府에서 서울시로 所屬을 시켜줬으면 좋았는데 이 推進을 서울시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옛날에 한번 그 이전에 백두산 호랑이를 中國에 가서 가지고 오려고 試圖하다 실패를 했죠.

○白懿宗 委員; 됐어요. 그러면 大公園 所長의 立場에서 中央政府에 建議를 해서 가져올 用意는 없습니까, 中央政府에 建議를 해서. 建議해 봤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제가 私的 채널을 통해서 는 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靑瓦臺, 私的 채널을 통해서. 거기 그래 目的이 뭐냐 했더니, 所屬도 山林廳이지만 山林廳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새끼를 낳아야 된다. 그러면 새끼는 여기서도 낳는다 이랬는데 所屬이 山林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要求를 못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白懿宗 委員; 다음 答辯해 주세요.

○委員長 金錫浩; 다른 委員님 質問하실 분, 金洛淳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長님, 委員님 答辯이 좀 있습니다.

○白懿宗 委員;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토끼고기, 원래 猛獸가 호랑이가 하루에 토끼 2, 닭 3마리를 먹습니다. 그래 무슨 쾌적한 분위기냐 하는데 사실 公園하면 市民들이 와서 情緒적으로 편안히 쉬고 가는데, 물론 屠殺하는 것은 보지 않죠. 제가 1週日에 한 번 정도 調理室을 갑니다. 가보니까 토끼를 하루 4,50마리를 飼育士가 죽이는 모습을 보고 公園에서도 과연 토끼를 죽여야 되겠느냐, 그래서 調査를 했습니다.

公園에서 안 죽이는, 이런 殺生을 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들 國民學校 때 배가 고플 때는 토끼를 키워서 學費를 낸 것처럼 토끼고기가 소고기보다 무척 싼어요. 그래서 그때 토끼고기로 하다 보니까 토끼고기가 慣習으로 되어 있고, 그래 제가 소고기를 가지고 호랑이한테 봤습니다. 소고기를 주니까 호랑이가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專門家인 動物部長한테 칼슘이나 分析해 보니까, 소고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價格을 따져 보니까 토끼 2마리보다 소고기 1kg이 價格이 2倍인가 3倍가 싸죠. 그러다 보니까 殺生도 안하고 豫算 節減도 1億 3,000萬원 되는구나, 그러면 一石二鳥 아니냐, 그래서 段階적으로 이제는 公園에서는 첫째 殺生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천만마리의 혼을 위로해 주는 동물위령비도 세우려다 反對해 못했는데 그런 次元에서 한 것입니다.

○白懿宗 委員; 所長님 말이죠, 싸다 비싸다 그것만 答辯해 주시면 돼요. 자꾸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토끼고기보다 소고기가 싸다는 이런 얘기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면 토끼는 우리 公園 內에서 飼育은 할

수 없습니까? 길러서 飼料로 쓸 用意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다른 動物園에서는 猛獸飼料를 어떤 方法으로 供給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그 동안에 토끼는 우리가 산 토끼를 사다가 잡았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렇죠. 살아 있는 토끼를 먹기 바로 전에 껍질을 벗겨서 죽여서 줍니다, 猛獸기 때문에.

○白懿宗 委員; 그러면 토끼 飼育士로부터 산 것을 사와서 우리 公園에서 屠殺했다 이 말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죠.

○白懿宗 委員; 그러면 屠殺施設은 전혀 없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되어 있습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면 그것을 觀覽客들이 볼 수 있는 場所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보지는 못하죠.

○白懿宗 委員; 그러면 公園이 쾌적한 造成이 되었다라고 報告書에 썼는데, 그것은 어떠한 후미진 곳에서 屠殺했을 것으로 보는데?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公園 內에서 殺生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白懿宗 委員; 그리고 우리 報告書 內容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죠, 토끼를 여기에서 잡지 않으니까 公園의 분위기가 造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報告를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과장된 報告書다 이런 얘기입니다. 本委員이 指摘하는 것은, 그렇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알겠습니다.

○白懿宗 委員;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토끼는 기를 수는

없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기르는 것보다, 그것은 아직 分析을 안 해 봤습니다만.....

○白懿宗 委員; 산 토끼를 사와서 우리 公園에 며칠간 保有했다가 屠殺합니까, 아니면 가져오는 즉시 屠殺합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당일에 합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면 산 토끼를 保管하는 場所도 상당한 地面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아침에 가져오면 아침에 바로 거기에서 屠殺해서 飼料로 配分합니다.

○白懿宗 委員; 91년부터 지금 이전까지 토끼를 購入한 그러한 資料 좀 부탁드립니다. 價格이라든가 어떠한 方法으로 購買를 하는가, 供給處 확실하게 해 주세요.

○委員長 金錫浩; 所長 알겠죠? 가급적 토끼를 購入하면서 이루어지는 事項을 가급적 상세히.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書面으로 報告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김장주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김장주 委員; 김장주 委員입니다.

世界化 世界化에 특히 이 公園.....

○白懿宗 委員; 答辯이 안되어 있어요. 公園數地 補償에 대해서 말이죠, 흥안농조 所有 땅을 언제부터 賃貸했고, 또 얼마를 賃貸料로 내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答辯이 전혀 없어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答辯드리겠습니다.

委員님 말씀대로 公園造成 당시 77年度에 이 땅을 다 買收했으면, 그때 1萬 4,000원 정도 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14

萬원 정도, 10倍 이상 비싸진 것이죠. 그 당시 못한 것은 참저로서도 公務員 立場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기 흥안농조 賃貸料에 대한 것은 細部的으로 모든 것을 委員님께 書面으로 提出하면 어떻겠습니까?

○白懿宗 委員; 안타까운 것이 11年 前에 이것을 買入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今年에야 이것을 鑑定을 하고 計劃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安逸無事하고 公務員들이 市民의 恤世에 대해서는 전혀 意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마음 아프게 指摘하는 것입니다. 資料를 자세히 해 주십시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알겠습니다.

○김장주 委員; 우리 所長님은 다른 나라의 公園도 많이 보신 것으로, 見學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서울랜드는 有數한 世界的 公園 가운데 水準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說明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또 그것을 뭐라고 그러니까? 市民이 公園을 利用하는 정도를 利用度라고 그럴까, 굳이 對比를 하자면 龍仁自然農園이 있습니다. 혹시 所長님 龍仁自然農園의 經營實態를 파악 理解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赤字 보고 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거기는 완전 黑字죠.

○김장주 委員; 됐습니다. 그래서 龍仁自然農園의 經營實態 아시는 대로 說明해 주시고, 우리 서울랜드의 經營實態는 여러분들이 質疑했으니까 대비해서 說明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白懿宗 委員께서 販賣施設에 대한 契約書 資料要請을 했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販賣施設에서 1年の 總賣出은 얼마인가.....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정확히 표현하기는.

○김장주 委員; 그렇게 無責任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왜냐 하면 委員님, 이것이 저희들이 直營하는 것이 아니고 個人이 直營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해서 報告는 드리지만.....

○김장주 委員; 公務員들이 그래서 탈이야. 그 부분을 최소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市民은 130億원이라는 엄청난 血稅를 낭비하고, 公務員 여러분들은 고생들 하시고, 옛말에 춤은 뭐가 추고 돈은 되놈이 어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꼴이 되어 서야 되겠습니까? 부득이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經營을 改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손을 대서 改善하는 것이 所長님 더불어서 여기 많은 任職員들의 使命이고 道理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公園의 水準도 세계화 속의 首都 서울에 어울리는 水準으로 만드는 것도 목표지만 經營도 使命感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販賣施設의 總賣出을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해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所長님, 김장주 委員 質問을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入札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장사하고 끝날 때까지 하기 때문에 關與를 할 수도 없지만, 그것 다 압니다. 그러나 추상적으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賣出이 오르겠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直營하게 되면 어느 정도 純利益이 오르겠다 이런 쪽의 추상적인 報告書를 내라는 얘기에요, 알겠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長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 委員; 아닙니다. 추상적인 報告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把握이 됐어요, 그래야 入札豫定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營業實績도 豫想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把握하고 있어야 不正이 없습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님 말씀대로 제가 昨年에 把握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把握해서 報告 드리겠습니다.

○김장주 委員;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이것이 저희들이 直營하는 事業이 아니고 個人이 賃貸해서 장사하는 것이고 稅務, 여러 가지 問題가 있기 때문에.....

○委員長 金錫浩; 알았어요. 答辯해 주세요, 書面으로.

具哲會 委員님, 質問하세요.

○具哲會 委員; 具哲會 委員입니다.

아까 便宜施設에 대해서 質問이 빠진 것이 있어서 質疑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김장주 委員님 質問에 答辯을 드리고,

○委員長 金錫浩; 그 答辯은 書面으로 소상히 答辯을 提出하라고 그랬잖아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龍仁自然農園과 서울大公園을 비교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저희들 大公園 設立할 당시에 收益事業은 서울시가 하나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民資를 誘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림이 하다 안 돼서 한일시멘트가 들어와서 再昨年까지 7 ~ 80億원 赤字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昨年부터 黑字로 돌아섰는데, 그럼 서울시는 뭐 하느냐, 서울시는 管理廳

입장에서 질서, 쾌적한 공원분위기이지 收益事業 자체를 리프트카니, 유희시설이니 복돌이 이것을 民資한테 다 주고 실제 저희들 收益事業을 그 때 돈을 들여서 했으면 龍仁自然農園 이상으로 땅땅거리면서 黑字를 볼 수 있죠. 저희들 돈을 받을 수 있는 事業이 없습니다.

委員님 말씀은 이전보다는 所長으로 하여금 合理的 經營, 經營改善 次元에서 명심해서 하라는 충고로 듣고 그것은 제가 研究를 하겠습니다.

收益事業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 民資誘致를 쫓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랜드 같은 것은 2004년이 가야 저것이 서울市로 다시 돌아오죠. 無償 使用期間이 16年 7個月 이니까. 그 때는 저것이 200億원이다 하면 저희들 100億원 갖고 너희들 100億원 가져라, 서울市로 돌아오는 것이죠. 2004년이 지나면 서울랜드 施設이 돌아오고, 복돌이가 돌아오고, 리프트카도 2010年되면 돌아옵니다. 그 때는 서울市가 黑字로 완전히 反轉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 收益에 대해서 일체 터치는 못합니다. 단지 너희들 질서를 잡아라 이런 것 하지 마라 이렇게 충고 내지 어드바이스를 해 줄 뿐이지 收益事業 자체를 터치 못하니까 龍仁自然農園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料金 자체가 龍仁自然農園하고는 턱이 없습니다. 돌고래쇼도 애들이 2,600원, 저희들 110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20倍 차이나죠, 公園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委員님.

○委員長 金錫造; 됐어요. 김장주 委員님 나머지는 書面으로 答辯 받죠?

○김장주 委員; 됐어요.

○具哲會 委員; 간단히 便宜施設 質疑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우리 所長님께 質疑를 하겠습니다.

質疑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우리 所長님께 한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都市公園條例 第11條第2項이 있죠? 期間延長條項의 立法趣旨가 무엇인지 說明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白懿宗 委員 質疑에 대해서 補充質疑를 우리 動物部長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끼하고 소고기 質疑가 나왔는데 本委員이 상식으로 알고 있기는 호랑이 사료가 소고기가 물론 좋겠죠, 소는 여기서 안 잡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고기를 사오죠.

○具哲會 委員; 屠殺해 놓은 고기를. 그런데 토끼하고 닭을 산 채로 가져와서 조리실에서 屠殺을 해서 사료로 쓰는 것은 아마 營養問題도 있고 기생충관계 이런 問題가 있어서 토끼하고 닭을 사용했지 않나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우리 動物部長님 그 점에 대해서 說明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動物部長 金正萬; 動物部長입니다.

우선 具委員님하고 兩 委員님이 토끼고기하고 닭고기에 대해서, 닭고기는 도계장에서 잡아서 완전히 도계장에서 들어오고, 토끼고기는 아까 當園에서 飼育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質問도 있었습시다만 원래 토끼는 콕시디움이라는 무서운 傳染病이 있습니다. 일반 獸醫師들도 治療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름철에 오면 몇 천만마리고 그것은 治療없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個別로 一般人들 것을 사용하고, 지금 人件費가 많이 들고 그것을 막을 만한 施設이 全國的으

로 어디나 世界的으로 토끼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양고라라고 하는 털을 이용하는 것은 소수 천마리 미만 단위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일 하는 것은 일단은 收集商이 단 토끼만 사서 公開競爭入札을 해서 가장 廉價로 落札이 된 분이 여기에서 指示書를 내리면 하루에 30마리다, 그럼 kg가 몇 kg냐, 個人이 잘 기른 것은 2.5kg도 나갑니다. 아직 成獸가 덜 된것은 들 나갑니다대개 1.5kg를 넘습니다.

그래서 그 收集하고 모아오는 價格이 상당히 옛날과 달리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시면 토끼 기른다거나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價格이 소고기보다 비싸고, 소고기는 지금 수입고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때는 3배부터 4배 이상의 價格差異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具哲會 委員; 屠殺해서 冷凍해서 가져온 소고기하고, 물론 기생충이나 疾病이 있겠지만 살아있는 토끼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屠殺해서 사료로 쓰는 것하고 動物에 營養關係는 전혀 없습니까?

○動物部長 金正萬; 네, 도계장에서는 거기에도 獸醫師가 도축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닭은 이상 없이 들어오고, 토끼는 일단 가져오면 우리 獸醫師들이 있습니다. 각 課에서 한 사람씩 나오고 診療課에서 나가고 해서 일단 屠殺한 다음에 껍데기 벗기고 내장 꺼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기생충이 感染될 수 있는 내장은 빼내고 간에 열사라는 것이 뭐냐면 간 농양처럼 하얀 농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失格을 시킵니다. 그래서 動物에게는 하등 支障이 없는 것을 2차적으로 검사한 다음에 合格品만 納品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진구 委員; 돼지고기를 넣으면 어때요?

○動物部長 金正萬; 지구상에서 돼지고기를 動物園의 動物 史料로 쓰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뜰 野生에서 뛰지 못하는 데다가 좁은 우리內에서 길러서 지방성분이 많은 것을 먹이면 壽命이 短縮되기 때문에 全 世界에서 기르는 데는 없습니다.

○朴贊國 委員; 식사하기 바로 전인데 간단하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네, 朴贊國 委員, 質問하세요.

○具哲會 委員; 아직 내가 質疑한 것 答辯 못 들었어요.

所長한테 質疑한 都市公園條例 第11條第2項의 立法趣旨.

○委員長 金錫浩; 맞아요, 都市公園條例 第11條第2項의 立法趣旨가 뭐냐라고 지금 質問했어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私見입니다만 갑자기 立法趣旨를 말씀드리려니까, 일단 造成當時에 혼란이 오니까 事業者의 安定性을 감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具哲會 委員; 그렇다면 지금 우리 所長님 前者에 공지를 가지고, 意慾을 가지고 便宜施設을 入札해 보겠다는 그런 意慾하고, 지금 都市公園條例 第11條第2項을 答辯하신 意圖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다른 것이 아니죠, 第11條第2項 趣旨는 事業者의 安定性을 감안했는데 이것을 십 몇 년간 運營하다 보니까 말 못할 것이 不法轉賣, 또는 여러 가지 管理廳長 立場에서, 經營收支 次元, 서비스 問題, 質 問題에서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政策的으로 市長의 指示에 따라 方針을 받아서 公開入札로 방향 전환한 것입니다.

○具哲會 委員; 그러면 우리 所長은 市長 政策方針에 따라서

방향 전환을 하면 되고, 條例는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이 條例를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니죠.

○具哲會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 說明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條例를 무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公開入札하는 것은 國民의 輿望事項 아닙니까?

○具哲會 委員; 아니, 所長. 公開入札을 國民의 念願事項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念願事項이 所長 念願事項인지 國民의 念願事項인지 그것은 모르겠고, 本委員이 알고 싶은 것을 質疑하는 것인데 되받아서 質疑하는 식으로 答辯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質疑를 합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님의 깊은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前者에 말씀드렸지만 特殊技術 내지 特殊 專門知識을 요하진 않는 한 모든 契約은 公開入札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具哲會 委員; 그래서 本委員이.....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특히 어떤 利權이 介入된 問題에 있어서는.....

○具哲會 委員; 보세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頭緒 없이 答辯하세요?

本委員이 묻는 質疑內容을 잘 이해하시고 答辯해 주시라고. 아까부터 우리 所長께서는 便宜施設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便宜施設에 대해서 質疑를 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質疑를 한다고 물었지 않습니까, 都市公園條例 第11條第2項 期間

延長條項입니다. 立法趣旨는 무엇이나고 제가 물었는데 잘 모르고 私見은 이렇다 答辯을 하셨는데 意譯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다르지 않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의미는 이렇지만.....

○具哲會 委員;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르지 않다, 았다는 것이 뭐냐, 市長의 결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本委員이 그러면 條例는 무시하고 市長 결심만 받아서 하는 것이냐, 모르니까 우리 所長한테 質疑를 하는 것인데 答辯態度가 뭐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죄송합니다.

사죄드리는데 條例를 무시하고 하셨다는 말씀은 여기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具哲會 委員; 지금 우리 所長님께서 答辯하시는 것이 主客이 顛倒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所長같이 達觀이 아니니까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죄송합니다.

○具哲會 委員; 그러면 거기 이해를 시키려고 생각을 해야지 도리어 저한테 質問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죄송합니다. 제가 사죄드립니다.

○具哲會 委員; 죄송이면 다 돼요?

무슨 태도가 그래요? 아니, 委員이 몰라서 質疑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理解를 得해 주려고 努力을 해야지.

○委員長 金錫浩; 具哲會 委員님, 조금 저기해 주세요,

所長, 조금 더 진취적으로 答辯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르면 다음에 書面으로 提出해 주세요.

都市公園條例 第11條第2項에 대해서는, 그趣旨에 대해서는 所長의 所見은 이렇다, 意見은 이렇다, 또 趣旨文은 이렇다 하는 것을, 어때요 具哲會 委員님, 다음에 書面으로 答辯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朴贊國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朴贊國 委員; 간단히 제가 疑問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資料 10페이지 委託販賣施設 部分에 보면 委託販賣業所에 77個所로 되어 있거든요. 公園 內에 全體가 77個라고 하는 말씀이시겠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렇죠, 大公園 內 全體. 서울랜드만 빼고요.

○朴贊國 委員; 그러면 서울랜드 敷地는 서울大公園의 敷地가 아납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서울랜드 施設 자체가 저희들이 寄附採納 받아서 서울시財産인데, 그 一定期間 16年 7個月 동안은.....

○朴贊國 委員;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들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울랜드에서 施設을 할때 그러한 즉, 委託販賣 자기네들 便宜施設 販賣所를 設置하겠다고 하는 契約,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납니까, 그렇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 部分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예요. 그래서 서울大公園에는 77個所를 委託을 해서 管理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서울랜드에는 지금 몇 個를 運營하고 계신지 이것 잘 모르시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파악해 報告드리겠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目的이 무엇이나 하면, 지금 언제든지 우리 市民들의 便宜施設이고 福利增進을 위해서 서울大公園이 존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자꾸 서비스 問題, 불친절하다고 하는 問題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77個所 委託管理 販賣業所에서 불친절한 것인지, 서울랜드가 運營하는 委託管理 販賣所가 불친절한 것인지 이것을 所長이 모르고 있잖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朴贊國 委員; 나는 그런 部分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에 서울랜드에서 들어왔던 契約書, 그 契約書 여기죠? 그 內容을, 즉 말해서 契約을 할 때 구체적으로 못이 박혀져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즉, 말해서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이런 目的으로 해서 정해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部分을 저희한테 資料로 넘겨주시고, 앞으로 그때 당시에 契約할 적에 위배된 事項이 있나 없나, 과거 그때 目的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네들이 더 뭐가 필요로 해서 建物을 좀 늘렸단가 더 한 군데 設置를 했다 라든가 이런 內容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저희들이 許可내지 않는 部分에 대해서는 建物追加 設置가 不可能하죠.

○朴贊國 委員; 不可能하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朴贊國 委員; 이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贊國 委員;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契約書上에 目的部分이 있는데 그 目的部分을 違反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단호히 묻는 것이예요. 그러면 없다 있더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對答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없습니다.

○朴贊國 委員; 없죠? 그러면 그 資料를 내주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다음은 金洛淳 委員, 質問 해주세요.

○金洛淳 委員; 金洛淳 委員입니다.

業務報告 3페이지를 보고 제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公園施設이 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收益事業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것 어느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서울랜드하고요, 복돌이동산하고요, 현대미술관은 저희들 것이 아니니까 관계 없고, 리프트카.

○金洛淳 委員; 그것 3個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便宜施設, 저희들이 賃貸한 便宜施設.

○金洛淳 委員; 네, 됐습니다. 서울랜드, 복돌이동산, 리프트카의 管理責任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全體的인 管理責任이?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저한테 있죠.

○金洛淳 委員; 그러면 서울랜드 契約을 所長하고 했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서울市長하고 했습니다.

○金洛淳 委員; 所長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契約은 서울市長하고 합니

다.

○金洛淳 委員; 복돌이동산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거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金洛淳 委員; 리프트카도 마찬가지로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金洛淳 委員; 그런데 이제 市長이 이것을 契約은 했지만 이것에 대한 管理는 所長이 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任받아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金洛淳 委員; 아까 所長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서울랜드가 赤字가 나서 代림이 받아서 한일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최초 77年度 公園造成 당시에 代림이 하려다가 이것이 收益이 안 맞다 해서 代림이 포기하고 한일시멘트가 들어왔죠. 그러다가 92년까지 赤字를 봤다고 제가 報告를 받았습시다. 收益 損益 計算書를 보니까. 昨年부터 黑字로 돌아선 줄 알고 있습니다.

○金洛淳 委員; 이것이 지금 서울랜드나 복돌이동산이나 리프트카가 收支經營이 赤字다 黑字다라는 것을 所長한테 報告를 해 줘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報告를 받고 있습니다.

○金洛淳 委員; 義務事項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제가 1년에 한두 번 報告를 받고 있습니다.

○金洛淳 委員; 이것이 義務事項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받는 것입니까?

-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임의로 제가 받습니다.
- 金洛淳 委員; 서울랜드가 말이죠, 88年度에 契約을 해서 2004년에 다시 서울市에 寄附採納하는 것으로.....
-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寄附採納은 이미 받았죠. 90年度인가 받았고, 使用權을 2004年 7月까지 줬습니다. 2004年 7月이 되면 서울랜드 1次施設이 서울市에서 다시 契約을 해야 됩니다, 돈을 받고. 지금은 돈을 안 받고 契約을 하는데 收益이 예를 들면 100億원이다 그러면 50億원 주고 50億원을 달라하면 50億원이 서울市 收入으로 되는 것이죠. 2004年까지 1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 金洛淳 委員; 2004年까지는 그냥 한덕개발인가 하는 會社에서 運營을 하는 것이죠?
-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죠.
- 金洛淳 委員; 이것이 지금 서울랜드를 한일시멘트에다 넘겨 줄 때 그 過程을 모르시죠, 所長이?
-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것은 잘 모릅니다.
- 金洛淳 委員; 복돌이동산은 지금 個人하고 契約이 되어 있습니까?
-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복돌이동산도 法人으로 되어 있죠.
- 金洛淳 委員; 그러니까 지금 서울大公園하고 관계 없는 會社에다 다 준 것이죠? 收益事業이니까 다 준 것이죠?
-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렇죠. 民資施設로 다 준 것이죠.
- 金洛淳 委員;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答辯하세요, 지금 時間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빨리 좀 끝냅시다.
- 그러면 이 복돌이동산을 예를 들어서 어느 會社한테 넘길

적에, 委託을 시킬 때 그 方法이 어떻습니까, 競爭入札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때 民資施設 誘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金洛淳 委員; 리프트카도 마찬가지로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金洛淳 委員; 정확히 모른다 그것이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金洛淳 委員;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서울랜드에 대한 問題點을 제가 한 가지 指摘을 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한덕개발에서 서울랜드 施設物을 使用을 하고 2004年 이후에 서울大公園에다 이 施設物을 다 넘겨주는 것으로 契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金洛淳 委員; 2004년에 가면 서울랜드에 있는 機械施設 내지는 施設物, 建築物 해 놓은 것이 쓸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所長.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 당시에 말입니다, 委員님, 저희들이 넘겨받을 때에는 專門家로 하여금 진단해서 완전히 正常的으로 使用하는 상태에서 넘겨받게 되어 있습니다.

○金洛淳 委員; 契約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金洛淳 委員; 契約書 寫本을 저한테 주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알겠습니다.

○金洛淳 委員;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서울시 方針에 利權事業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利權이 남는 事業은 전부 民間業者한테 넘겨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利權이 있는 事業을

民間業者한테 넘겨줄 적에는 지금 所長이 즉 말씀하시는 公開競爭入札, 상당히 좋은 方法입니다, 그것이. 그런 方法에 의해서 넘겨줬으면 아무 의혹이 없는데 그런 方法이 아닌 方法으로 다 넘겨줬단 말이에요. 本委員이 調査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本委員이 調査를 잘 못했는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보면 이 事業이 赤字가 나든 黒字가 나든간에 어느 한 業者, 어느 한 民間業體한테 넘겨줬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은 利權을 넘겨 준 것이란 말이에요. 特惠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所長.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저도 委員님 말씀에 공감 하지만 서울랜드만은 그렇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림에서 도저히 損益이 안 맞아서 그만 둔 것을 한일 시멘트를 強制로 끌어들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具體的인 內容은 모르겠습니다만.

○金洛淳 委員; 所長이 지금 答辯을 말이죠, 자의적인 答辯을 하시면 안 돼요. 잘 모르면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 생각에는, 個人的인 私見으로는, 이런 答辯을 하시면 안 돼요. 本委員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죄송합니다.

○金洛淳 委員; 그래서 지금 이 세 군데, 아까 同僚委員님들께서 便宜施設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資料要求를 하셨으니 까 除外하고, 세 군데 業體에 대한 것, 契約書를 具體的인 것까지 全般的인 것을 다 주세요, 완벽하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알겠습니다.

○金洛淳 委員; 그리고 契約을 한 會社, 契約을 한 會社에 대한 內譯書도 내 주세요. 어느 會社, 어느 會社하고 契約이 되었으면 그 會社의 內譯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資

本金, 代表理事, 位置, 어떤 法人이면 어떤 性格의 法人이다 하는 法人登錄證까지도 카피해서 저한테 주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알겠습니다.

○金洛淳 委員; 그리고 所長,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大公園이 法院에 裁判 繫留中이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지금 김재춘 땅 90餘 萬 坪에 대해서 서울高法 民事部에 裁判 繫留 中에 있죠.

○金洛淳 委員; 1次에서 이겼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民事支法에서는 勝訴했습니다.

○金洛淳 委員; 2次에서는 어떻게 되었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2次에서는 아직 判決이 안 났습니다.

○金洛淳 委員; 지금 最終 判決이 언제 납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最終 判決은 民事니까 그것은 제가.....

○金洛淳 委員; 아니, 지금 2次에 대한 것. 곧 되지 않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글썄, 그것은 제가 確認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金洛淳 委員; 그것을 지금 이쪽에서 안하죠? 서울시에서 하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렇죠. 서울시 辯護士 들.....

○金洛淳 委員; 그 裁判하고 있는 現況, 그것도 한 部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錫浩; 李容富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李容富 委員; 李容富 委員입니다.

우리 金洛淳 委員의 質問과 關聯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所長님께서 答辯하실 때에 서울랜드에 대한 經營收支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所長님께서 서울랜드의 經營方針에 대해서, 經營收支에 대해서 義務적으로 報告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經營收支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答辯을 하셨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제가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義務性보다는 所長이 要求하면 民資施設에서는 經營狀態를 提出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두 번 要求를 했습니다.

○李容富 委員; 아니, 所長님께서 答辯하신 內容이 자의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義務事項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만 하세요, 간략하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정확히 제가 確認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李龍宰 委員; 그러면 確認해서 報告해 주시고, 그런데 그 앞선 質問에 答辯이 서울랜드의 管理責任을, 問題가 發生할 때 管理責任을 所長이 진다라고 答辯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法的 責任은 所長이 안 집니다.

○李容富 委員; 그러면 어떤 責任을 지고 계십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러니까 大公園 全體를 管理하는데 저희들이 조언 내지 監督하는, 저희들이 法的 責

任은 안 지게 되어 있습니다.

○李容富 委員; 法的 責任은 지지 않고, 서울大公園 内の 특
정되어 있는, 소위 이야기해서 經營마인드에서 일어나는 收益
事業의 주된 서울랜드 管理業務에서 發生된 모든 問題는 전
혀 서울大公園과 연관이 없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관여 못 합니다. 運營
問題이니까.

○李容富 委員; 그런데 그 事項을 그렇게 答辯을 하셨으면 本
委員이 質疑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랜드의 管理責任을 所長이
지고 있다라고 아까 金洛淳委員께서 質疑한 問題에 대해서
答辯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修正해도 되겠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李容富 委員; 그렇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李容富 委員; 앞으로 우리 所長께서는 委員들 質問事項에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분명하게 對答하세요.

同僚委員께서 質問한 事項에 대해서 敎育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答辯을 하지 마시고 아는 事項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事項은 알아서 書面報告 드리겠습니다 하는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質問을 드리
겠습니다.

서울大公園 主要 推進事業과 관련해서 현재 歲入 歲出 豫算
書를 보면 豫算編成에서조차도 약 134億 3,000萬원이라는
赤字豫算을 編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非豫算事業으로 主
要 推進事業 내용에 보면 동물위령비 건립, 원두막 제작·설
치, 이 豫算에 소요된 財源調達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동물위령비 건립하고, 원

두막 제작·설치는 豫算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동물위령비는 글을 받아다 장소를 相義해서 정하고 위령비돌을, 動物飼안에 있는 돌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것으로 했고, 원두막은 옛날에 지었던 것 부수고 남은 송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은사시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은사시나무를 베어서 원두막을 製作했습니다.

○李容富 委員; 그래서 非豫算事業으로 費用은 전혀 支出되지 않았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李容富 委員; 그러면 기존에 있는 建物を 다시 補完하고 자체적으로 事業을 施行해서 이러한 施設들을 만들어 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여기에는 나무로 된 정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정자를 부숴야 되니까 부신 것 중에 쓸 수 있는 송판이나 材木을 활용해서 만든 것이죠.

○李容富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이 質問을 했던 要旨는 지금 不要不急하게 支給해야 될 흥안농조라든지, 用役費라든지 이런 事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豫算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事業을 主要 推進事業으로 業務報告를 하기 때문에 제가 質疑를 했는데 다행히도 本委員이 의심하고 있는 事項과 배치되는 동물위령비 건립이라든지, 원두막 제작·설치는 서울大公園에서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施設을 가지고 活用을 해서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質問하겠습니다. 一般現況에 보면 서울大公園의 지금 機構表를 보니까 定員이 283名입니다. 현재 運營되고 있는 人員이 287名이다. 그렇다면 定員超過가 4

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運營되고 있나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애당초 저희들 定員이 318名이었습시다만 지난번 經營改善 次元에서 組織改編을 1차 단행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 報告드리도록 하고, 94년에 해서 35名을 減縮했습니다. 減縮하다보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自然淘汰를 바라는 거예요. 3名이 自然淘汰되면 더 이상 本廳으로부터 T/O를 안 받죠, 그것입니다.

○李容富 委員; 自然減少로 T/O가 안 맞는 것이 아니고, 定員의 현재 T/O가 280名으로 經營收支改善을 하면서 283名으로 確定을 했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318名에서 283 名으로 줄었죠.

○李容富 委員; 옛날에 318名이 됐든 350名이 됐든간에 經營收支改善을 해서 현재 서울大公園의 人的構成은 283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意見에 의해서 經營收支改善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李龍宰 委員; 그런데 현재 283名으로 運營하지 않고, 287名으로 運營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4名이 追加된 원인에 대해서 答辯하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말씀드린 대로 35名 減縮을 작년 年末에 하다보니까 35名중에서 31名을 減縮하고 4名이 남았죠. 公務員 組織을 한번에 하는 것이 自然減縮시키는 것이죠, 그런 측에서 현재 4名이 남아있는 것이죠.

○李容富 委員; 自然減少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所長께서는 業務報告 당시에 定員 283名으로 하고 있는데 現員

287名으로 報告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35名 減縮한 데서 自然減少 31名 減縮하고 나머지 4名이 自然減少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4名이 추가로 運營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李容富 委員; 그러면 35名을 減少하는데 經營收支를 改善하는 그 브랜드는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83名만 가지면 될 것을 지금 4名이 追加로 運營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豫算이 더 執行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所長의 책임은 없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이런 전체적인 問題는 大公園과 本廳에서 할 問題인데, 갑자기 35名을 減縮해서 自然減少도 있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配置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현재 4名을 정리 못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할 問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容富 委員; 서울大公園 人員을 누가 정합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本廳에서 합니다.

○李容富 委員; 本廳에서 합니까? 本廳에서 여기 서울大公園 所長 관계없이 人員을 編成하고, 그 編成된 人員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 所長의 職務는 어떤 형태로 지금 여기에 나와서 勤務하고 계십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T/O調整같은 것은 本廳에서 하죠.

여기의 意見を 들어서.

○李容富 委員; T/O調整을 本廳에서 할 때 所長의 報告없이, 所長이 이러한 人的構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報告를 올렸을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本廳에서 283名으로 適正人

員을 선정해서 運營하도록 그렇게 指示를 했을 텐데, 그렇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李容富 委員; 그러면 조금 전에 所長께서 말씀하시는 전에 315名 중에서 經營收支改善하면서 人員을 減縮하고 減縮하면서 나머지 35名이 남았는데 35名 중에서 31名은 다른 데로 轉勤을 갔던가 그렇지 않으면 自然退職을 했든가 했었는데 아직도 4名이 남아서 定員超過 運營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所長이 분명히 잘못 運營하고 있는 것이죠?

所長, 答辯이 어려우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현재 定員超過 人員이 4名인데 언제까지 이 定員超過 人員으로 서울大公園을 管理하고 維持하실 것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公務員은 法的으로 保障身分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4名 남아 있으면 賣票員이 4名 남아 있는데 서울시 公務員 5萬 6,000명 名 중에서 서울시 機構가 많은데 거기에서 비면 서울시에서 採用을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내줌으로써 여기서는 自然減少되고 전체 組織이 運營되는 것이죠,

○李容富 委員;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質疑하는 것은 定員超過 人員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지엽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만 答辯하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저로서는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確答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전체 組織運營 問題이기 때문에 비는 대로 充員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까지 4名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제가 얘기 못하겠습니다.

○李容富 委員; 서울大公園의 綜合的인 計劃의 방침을 所長이

만들고, 또 全 職員 283名이 一心同體가 되어서 만들어서 그런 立案을 가지고 市民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公園을 조성하면서 經營分析을 통한 公園의 經營合理化를 추구하겠다는 所長께서 가장 기본적인 人的構成에 대한 現況問題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定員을 283次으로 해서 報告를 하고, 그 報告에 의해서 서울市廳이 283次으로 定員을 인정했는데 지금 現員 4名이 超過運營 되고 있는 상태를 언제까지 정리할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市民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經營合理化를 추구 한다는 데는 기대를 못하겠다는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問題는 서울大公園 綜合計劃을 철저히 樹立해서 정말 業務報告書에서 所長께서 말씀하신 市民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公園造成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錫浩; 宋宗燮 委員, 質問하세요.

○宋宗燮 委員; 宋宗燮 委員입니다. 지금 赤字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 徵收하지 못한 賃貸料라든지 入場料, 駐車料 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入場料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죠. 入場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항상 現札로 받으니까.

○宋宗燮 委員; 지금 이 시점까지 徵收하지 못한 것이 있나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없습니다.

○宋宗燮 委員; 賃貸料도 전부 徵收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賃貸料는 다 徵收했죠.

- 宋宗燮 委員; 委託料는?
-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託料도 마찬가지로.
- 宋宗燮 委員; 쉽게 말하면 외상값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렇죠, 받을 것은 다 받죠.
- 宋宗燮 委員; 다 받았습니까?
-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 委員長 金錫浩; 白懿宗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 白懿宗 委員; 所長님,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大公園에서 各 賣店을 入札하는데 코너 하나 하나 직접 합니까, 아니면 대표적인 會社에다 入札을 주어서 그 會社로 하여금 그쪽에서 다시 委託管理하게 합니까?
-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님, 저희들 個人이 한 것이 아니고 會社가 있습니다. 대원관리, 동산 이렇게 會社하고 契約하고 하는데 會社에서 個人들한테 다시 된 것이죠.
- 白懿宗 委員; 지금 그러면 大公園에서 入札을 하고 있는 會社가 어느 몇 個 業體입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대원관리주식회사라고 있죠, 주식회사 동산 있죠, 형민관광이 있죠, 돌고래휴게소가 있죠, 연도산업이라고 있죠?
-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 白懿宗 委員; 이 5個 業體에 入札을 하고 있습니까?
-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 白懿宗 委員; 그 외에는 없어요? 큰일났구만, 오늘 業務報告하신 분이 저렇게 몰라서.
-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약국하고 유모차가 빠졌습

니다.

○白懿宗 委員; 약국하고 유모차는 개별적으로 入札해 줘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김장주 委員; 그것만 實需要者가 있구만.

○白懿宗 委員; 그러면 대원관리주식회사한테는 어떤 業種을, 몇 個 業種을 주고 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대원관리한테는 식당 3個, 종합매점 2,간이매점 3,식료음료자판기 15個입니다.

○白懿宗 委員; 그럼 식당이라든지, 간이매점 이런 業所는 우리 管理所長한테는 전혀 관련이 안 돼요, 대원관리주식회사하고만 대화가 되지 이쪽은 關與 안하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렇습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면 대원관리주식회사에서 大公園으로 하여금 入札 받아서 이쪽에 委託管理함에 있어서 權利金이나 프리미엄을 얼마든지 받아도 상관 안하죠?

쉽게, 빨리 對答하세요. 상관 못하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 사실을 알면 契約을 取消해야 되겠요. 不法이니깐요.

○白懿宗 委員;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대원에서 직접 直營하지 않고 다른 業體들한테 委託管理하고 있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白懿宗 委員; 契約을 取消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알면서 안하는 것은 職務遺棄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못했습니다.

○白懿宗 委員; 알면서 왜 못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죄송합니다.

○白懿宗 委員; 죄송하다는 것이 答辯이라고 한다면 오늘 報告를 받을 필요가 없고, 質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契約을 違反하면 契約을 取消한다라고 지금 答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制裁를 措置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의기양양한 所長의 태도하고 실지 하는 業務하고는 전혀 背馳되는 일이에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런 心證은 있으나 物證이 없고, 그래서 管理廳長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問題가 계속 提起되기 때문에 이것을 經營收支 合理化를 기하는 동시에 일소에 解決하는 것이 公開入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公開入札 方向으로 決定한 것입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면 앞으로 所長님께서서는 이러한 5個 業體한테 特惠를 주지 말고 직접 實需要者 事業者한테 바로.....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公開入札하면 그렇게 됩니다.

○白懿宗 委員; 公開入札이든 隨意契約이든 해서 그렇게 할 豫定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白懿宗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원이나 5個 業體한테 入札은 몇年度에 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每年 합니다. 1年 單位로.

○白懿宗 委員; 그러면 95년에 아직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95年度는 했습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면 94年度에 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했습니다.

○白懿宗 委員; 그러면 93年度에도 했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白懿宗 委員; 그러면 이 業體에서는 대단히 民願이 많아요. 93年 4월에 入札을 해서 그 期間이 3年 契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昨年에 했고 또 올해 했다는 말입니까? 거짓말 하는 것 아니에요? 93年 4월에 入札해서 3年間 使用하기로 入札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年으로 보면 96年度 4월에 가서 다시 入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入札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所長은今年에도 했고, 昨年에도 했다고 그렇게 거짓 答辯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님,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84年 이후에 그렇게 그렇게 넘어오다가 委員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이지 않는 物證은 搜查機關이 아니니까, 心證으로 이루었던 非理나 이런 것이 있는데 93年度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言論, 議會, 監查機關에서 왜 隨意契約을 하느냐 해서 競爭入札해서 그 때 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3年 單位로 하는 것 그것은 契約書上에 없습니다. 없고, 그때는 뭐냐 하면 地域 指名入札을 했어요.

그래서 대원관리에서 만들어서 하나 한 것입니다, 동산이라고.

○白懿宗 委員; 所長, 本委員이 물었을 때 契約이 違背되면 取消를 합니다. 그러면 契約違背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더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契約 違背된 事項을 措置했습니까 그랬더니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못했느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問題는 다 끝난 얘기인데 뭐 다른 말이 많아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組織 責任者 立場으로는 政策的으로, 全般的으로 解決하려고 하는 것이죠,

○白懿宗 委員;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心證은 가나 搜查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묵시적으로 措置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答辯을 하는 것이죠? 心證은 가나 搜查官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렇게 1個 1個 케이스별로 措置하는 것이 아니라 組織 全般的인 經營合理化 次元에서 改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白懿宗 委員; 이 많은 人力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所長? 솔직히 한 마디만 해 주세요.

5個 業體라고 하는 特定業體에 特惠를 줘서 그 사람들이 횡포를 해도 管理所長은 心證은 가나 制裁를 못하고 있다, 이 안타까운 答辯이, 어떻게 副理事官이 되었어.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정말 복받치는 심정 금할 길이 없는 데요, 미안합니다. 써서는 안 될 그런 말을 써서.

이 5個 業體에 대해서 각각 群小業體, 예를 들어 대원관리 주식회사는 어떤 사람한테 어떤 業所를 줬고, 株式會社 동산은 어떻게 했고, 이 5個 業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委託管理 契約書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원에서 群小業體한테 준 委託管理 契約書도 있을 것이예요. 무조건 몇 천만원, 몇 억씩 주고 식당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口頭로 안했을 것이야. 그것을 철저히 調査해서 本委員한테 契約書 提出해 주시고, 대원이나 5個 業體의 入札契約書を 또 寫本, 複寫 잘 보이지 않게 하지 말고 확실히 보이게 해서 寫本을

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해서 向後對策 해 주시고, 93年 4월에 入札을 해서 入札契約이 3年이면 96年 4월까지 가야 되는데 왜 이것을 중간에 變更을 해서 民願의 怨聲을 높도록 하는 것인지 이 問題도 書面으로 答辯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쓸데 없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고, 아까 우리 同僚委員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면 바로바로 끝날 얘기를 자꾸 길게 하니까 서로 감정만 사고 그래요. 이 자리가 감정 사서 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錫浩; 所長, 잘 아셨죠? 書面 準備를 잘 하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알겠습니다.

○宋宗燮 委員; 白懿宗 委員님 質問에 대해서 補充 質問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宋宗燮 委員님, 補充質問하세요.

○宋宗燮 委員; 契約 違反者에 대한 取消權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저한테 있죠.

○宋宗燮 委員; 구체적으로 所長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했으면 職務遺棄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李康珍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李康珍 委員; 지금 저는 좀 方向을 달리 해서 여기 77個 簡易販賣施設이나 이런 問題들

은 많은 委員님들이 質疑하셨기 때문에 方向을 달리 해서 質問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開園 당시보다 動物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셨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李康珍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서울大公園의 動物이 고갈상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豫算을 확보해서 調達廳을 통해서 國際入札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康珍 委員; 지금 충원하는 動物들은 缺雙, 缺雙이라는 것이 결국은 雙이 없어 補充하는 것, 新種, 滅種動物인데 이것이 지금 없어지는 動物에 비해서 새로 追加되는 動物의 數가 더 많은가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폐사되는 것이 좀 많아서 그런 問題가 생기죠, 수입하는 것보다.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豫算을 많이 確保해서 많이 사야 되는데.....

○李康珍 委員; 그리고 지금 서울大公園의 飼育士들은 어떤 식으로 충원을 합니까? 다른 教育機關이 따로 있나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動物部長께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動物部長 金正萬; 開園 당시 動物이 아까 조금 우리 所長님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88올림픽 때에 비둘기를 흰 비둘기로 해서 방사한 것도 있고, 飼育士들은 현재 農業學校 畜産科나 專門大學을 나온 사람을 新聞에 公告한 다음에 公開로 합니다. 단 하나 경험이 있는 사람은 3年 동안을 農場에서 野生動物이라든가 個人農場이라든가 또 家畜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確認證을 받아서 그래서 採用을 했습니다.

○李康珍 委員; 飼育士들을 그렇게 계속, 앞으로 계속 충원하는데 큰 問題는 없나요?

○動物部長 金正萬; 그런 데 問題는 없습니다.

○李康珍 委員; 動物이 고갈되어서 動物園의 機能을 못하게 될 우려도 없는 것이죠?

○動物部長 金正萬;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康珍 委員; 제가 왜 두 가지를 먼저 여쭙봤느냐 하면 지금 많은 委員님들이 서울大公園에 약 100億원의 赤字가 난다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100億원이라고 하면 千萬 서울市民이 약 1人當 1,000원꼴, 120億원이라고 해도 한 1,200원꼴의 年間 負擔을 해서 이런 公園을 維持하고 管理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觀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토끼를 여기에서 잡아서 野生動物들 먹이를 준다고 그러셨는데 토끼 내장을 꺼내고 껍질을 벗기고 한 쓰레기를 어떻게 處理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燒却하죠. 燒却爐가 있습니다.

폐사동물하고 이런 公害되는 것은 전부 다 燒却爐가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動物 糞尿는 어떻게 處理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動物 糞尿는 나중에 時間 되시면 제가 案内하겠지만 우리 쓰레기處理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는 쓰레기로 해서 植物園에 쓰고, 또 今年에 豫算 確保해서 비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도 안 내버리고 쓰고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제가 본 바에 의하면 昨年 94年度 11月 行政 監査 때 서울大公園에서 提出한 資料를 보니까 퇴비화할 수 있는 量보다도 動物 糞尿가 더 많이 배출이 되어서 약 2,000

톤 정도가 탱크를 만들고 해서 保管을 하고 있다라고 본 기억이 납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保管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늘었을 것 아닙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아니, 2,000톤이 있었는데今年에 500톤을 나무 거름으로 줘서 지금 1,500톤이 있습니다. 그것을今年 9월에 調達廳에서 그것이 되면 비료화하려고 합니다.

○李康珍 委員; 비료화하는데 그 동안 계속 動物 糞尿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나왔죠.

○李康珍 委員; 그것은 어떻게 處理를 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계속 쌓아 냈죠. 處理해 놓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李康珍 委員; 그러면 2,000톤 훨씬 넘었겠네요?

하루에 動物 糞尿가 얼마쯤 나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장주 委員; 擔當課長한테 물어보세요.

○植物部長 李會鳳; 植物部長입니다.

지금 動物 糞尿는 하루에 5톤 내지 6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昨年에 2,000톤이 備蓄이 된 것은 野積을 해서 퇴비화했습니다. 그래서 野積을 했기 때문에 완전 퇴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이것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昨年에 野積, 즉 開園以來 쌓여서 완전 퇴비된 것은 약 5·600톤은今年 봄에 다 썼습니다. 쓰고, 지금 그 후에 生産되는 것 이것은 아까 所長님

이 말씀드렸습시다만 機械化해서 포장된 비료로 製作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調達廳에 지금 要請 中입니다.

○李康珍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動物 糞尿를 處理하는 施設은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京畿道 一圓에 가면 上水源地域에 畜産農家の 糞尿가 上水源을 굉장히 汚染시키는 이런 일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大公園 같은 경우는 動物들이 糞尿를 化粧室에 가서 할 것은 아니니까 어떤 곳에서 하든간에 그것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地下水를 利用하는데 심하게 汚染이 된다는지 이런 것들을 防止할 수 있는 施設이 다 되어 있습니까?

○植物部長 李會鳳; 네, 分流下水官路를 묻어서 저희 下水處理場이 별도로 있습니다. 완전히 處理할 수 있도록.

○李康珍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昨年 行政監査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清掃代行業體를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公園 內的 清掃代行은 대원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대원관리가 果川市 業體인가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昨年 行政監査 때 한 委員님께서 地域이 京畿道에 있다 하더라도 서울大公園이 서울시 傘下機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大公園의 所長이 서울시 公務員이기 때문에 서울시長과 京畿道知事が 업무협조를 하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處理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檢討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龍山 美軍部隊의 쓰레기 處理는 富川에 있는

美軍部隊 쓰레기 處理하는 會社에서 龍山에 가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업무협조를 해서 可能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것이 중요한 問題입니다. 지금 軍浦나 이런 데서 쓰레기 發生量을 가지고 金浦에서 쓰레기 搬入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果川市民들이 이 사실을 알면 果川市民들은 자기들이 더 負擔을 한다 이것입니다, 서울市民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首都圈 理立地를 建設한다면 서울시의 쓰레기 量과 果川市の 쓰레기 量을 다 計算해서 分擔金 內譯을 나눠주는데 서울大公園에서 나오는 쓰레기 量을 果川市の 쓰레기 量으로 編入을 시켜 놓으면 果川市民들이 분명히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런 데에 對備를 해서라도 미리, 그때 분명히 社長님께서 檢討해 보겠다고 對答을 하신 것으로 제가 速記錄에서 봤는데 말로만 檢討해 보겠다고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檢討를 해 보세요. 서울시議員들이 괜히 와서 質疑하는 것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檢討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委員들이, 서울랜드 후문 쪽에 지금도 약수터가 있나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약수터 주변에 쓰레기를 몰래 파묻어서 問題가 되고 한 적이 있었는데, 昨年 行政事務監査 때도. 그런 問題까지 포함해서 쓰레기對策을 만전을 기하세요. 그리고 可能하면 서울시 清掃代行業者로 하여금 清掃代行을 할 수 있도록, 業務協定을 맺을 수 있도록 서울시 本廳에도 要求를 하시고요.

그리고 昨年 行政事務監査 때 많은 委員들이 이것이 서울시民들이 負擔을 해서 여기에 보면 100億원 정도의 赤字分을

年間 1人當 1,000원 정도의 赤字負擔을 해서 運營이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利用을 하게 하기 위한 선전효과겸 서울市民들에 대한 報答겸 해서 月 1회 정도 無料開放할 用意가 없냐고 했을 때 社長님은 분명히 檢討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檢討해 봤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해 봤습니다.

○李康珍 委員;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안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李康珍 委員; 왜 안하는 방향으로 했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本廳하고 협의과정에서,

○李康珍 委員; 서울大公園이 지금 年間 1,000萬名 채 利用을 못하는 것으로 돼 있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有料入場客이 700餘萬 名 됩니다.

○李康珍 委員; 서울랜드 入場客은 얼마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것 합해서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서울랜드 入場客과 서울大公園 入場客 數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거의 비슷합니다.

○李康珍 委員; 서울랜드는 지금 入場料가 상당히 비싸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入場料가 3,500원입니다.

○李康珍 委員; 서울랜드에 가는 사람이 서울大公園에 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대체적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봤을 때 서울랜

드를 통해서 서울大公園으로 오는 사람이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극히 없습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많지는 않겠죠.

○李康珍 委員; 오히려 서울大公園에 와서 특별한 흥미거리가 없으니까 서울랜드로 가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서울大公園 이용을 弘報하기 위해서 광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李康珍 委員; 그러면 서울市民들의 돈을 받아서 運營한다고, 아까 분명히 社長님께서 外國을 나가보니까 점차적으로 無料化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無料化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市民들이 많이 利用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市民들이 많이 利用을 하면 서울大公園에 가서 어떤 長點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利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今年 여름철에 각 新聞에 났던, 예를 들어 靑少年野營場 關聯記事 등 가족끼리 캠핑을 갈 수 있는 좋은 곳,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좋은 곳, 많은 곳을 봤을 때 서울大公園을 소개한 記事를 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靑少年野營場 關聯된 記事를 딱 한번 봤어요. 그 外에는 言論에서조차도 서울大公園을 서울市民들이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혀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弘報戰略이 부족했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弘報戰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計劃이십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弘報戰略을 생각 못한 것이 아닌데 昨年 같은 경우에 放送하고 新聞에 서울大公園이

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自然弘報가 된 것이죠.

○李康珍 委員;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일전에 제가 서울大公園에 오니까 낮이 익은 분이 계셔서 자세히 보니까 TV에 출연하셨던 動物部長님이 계셔서 낮이 익었는데, 지금 각 TV放送이나 이런 데서 교양물로 動物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製作하고 있죠, CATV나 이런 데서 製作을 하고 있고, 거기 資料의 약 80% 이상을 外國資料를 갖다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그러면 서울大公園에 動物이 없어서 그러냐, 製作이 容易하지 않고, 서울大公園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弘報를 하겠다 이런 方案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돈 가지고 그냥 職員들 月給 나뉘가지고, 그냥 여기 서울大公園에 있다가 技術職이 아닌 一般職들은 기회 좋으면 本廳에도 들어가고 이런 자리를 維持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서울大公園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大公園 經營, 아까 우리 朴贊國 委員님께서도 좋은 質疑하셨는데 赤字를 보고 있지만 經營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했으면 經營마인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서울大公園을 弘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豫算條件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市政뉴스라는 것이 週刊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다 서울大公園에서 협조의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가족들끼리 서울大公園에 週末을 보내기 위해서 많이 와 달라고 협조의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

에요.

단지 서울大公園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質疑를 하면서, 지금까지 즉 質疑答辯過程에서 느낀 것들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所長님께서 여기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 정도 더 勤務를 하고 싶으십니까? 서울大公園 所長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靑少年修練場 任期동안 꼭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李康珍 委員; 지금 靑少年修練場 만들었잖아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너무 狹小하고, 소위 서울에 있는 우리 靑少年들이 갈데가 없기 때문에 育小年修練場을 이번 公園 造成發展計劃으로.....

○李康珍 委員; 서울大公園은 慰樂施設도 있고, 靑少年修練場도 있고, 動物園도 있고, 植物園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종합적인 公園이죠? 저도 서울大公園의 문 앞까지는 많이 와봤지만 들어와 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大公園을 徒歩로 전체를 다 돌아보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所要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하루는 걸리죠.

○李康珍 委員; 하루 걸리죠, 그러면 서울大公園의 動物을 즉 配置해 놓은 配置의 根據가 있습니까? 設計할 때 처음에? 이 앞의 弘報 冊子에 나와 있는 제일 앞 페이지의 약도대로 지금 動物들이 위치를 하고 있나요?

보통 처음 動物園에 들어와서 타조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됩니까, 아니면 희귀한 動物을 보게 됩니까?

나중에 이것은 9월이든 다음 기회든 한번 또 質疑를 할 때가 있겠는데 구체적인 資料를 받아서 그 때 質疑를 다시 하

겠는데 전반적으로 서울大公園의 간이판매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動物管理,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각 한 파트 한 파트 조그마한 것들은 조금씩 改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소고기로 대체를 했더니 1億 3,000萬원의 節減效果가 나고, 公園 內에서 屠殺하는 것은 問題가 있으니까 안하게 돼서 좋다, 이런 것 조그마한 것들은 改善이 많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체의 그림이 전혀 改善의 意志가 없다고 보여져서 제가 이런 質問을 드립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것을 이번 綜合發展計劃 때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李康珍 委員; 그리고 綜合發展計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質問하겠습니다.

綜合發展計劃 해서 보면 課業內容을 서울大公園에서 指定을 해 준 것인가요, 4가지 項目을?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저희들이 本廳 서울시學術用投審査委員會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協議한 것입니다.

○李康珍 委員; 거기하고 協議를 했던 간에 이 4가지를 해 달라고 指示를 한 것이죠? 처음에 入札할 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李康珍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經營分析이나 公園造成, 사실 經營分析도 지금 와서 보니까 특별히 經營分析할 것도 없네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收益事業 없으니까 그렇죠.

○李康珍 委員; 그 다음에 公園造成 基本計劃 變更 여기 入札 받은 會社는 이런 경험이 많은 會社입니까? 落札을 받은 會社는? 경희 뭐라고 돼 있던데,

○植物部長 李會鳳; 植物部長입니다.

제가 擔當을 했고, 企劃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부터 조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배경은 됐고, 배경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落札 받은 會社가 경험이 많고, 多年間에 경험이 蓄積돼 있는 會社입니까?

○植物部長 李會鳳; 蓄積된 會社 5個 기능별로 돼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우리 나라에서 서울大 公園 같은 규모가 없을 텐데 어떤 경험을 蓄積했죠?

○植物部長 李會鳳; 전부 國內業體이기 때문에 國內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사람들의 경험은 주로 서울市를 중심으로 한 公園들입니다.

○李康珍 委員; 서울市에 있는 公園 중에서 이런 動物園 畜舍나 이런 大規模의.....

○植物部長 李會鳳; 大規模는 한 일이 없죠.

○李康珍 委員; 없는데 어떻게 公園造成基本計劃에 대해서 變更할 수가 있죠?

○植物部長 李會鳳; 그래도 다른 능력이나 지금까지 蓄積해 온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판단컨대, 國內에서는 이런 公園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業體든지 경험이 없다고 봐야됩니다.

○李康珍 委員;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質疑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文化遺跡 地表 調查해서 公園開發 計劃地區 內에 歷史 遺跡 地表 調查라는 것이 있죠. 여기 무슨 徵候가 보였습니까?

○植物部長 李會鳳; 그것은 당초 公園을 바꿀 때 京畿道 審議 委員會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文化遺跡이 있을지 모

르니까 開發하는 地域에 대해서는 調査해서 調査書を 붙여
서.....

○李康珍 委員; 지금까지 開發하는 과정에서 무슨 徵候가 보
였습니까?

○植物部長 李會鳳; 徵候는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李康珍 委員; 그런데 이것을 課業內容에 넣어서 文化遺跡
地表 調査하느라고 그 사람들 用役費 들이고 해서 이런 것도
다 豫算이 반영돼 있을 것 아닙니까?

○植物部長 李會鳳; 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아까 말씀드
렸습니니다만 저희들 모든 認·許可 過程을 京畿道를 통해서 받
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公園을 바꾸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調査하라고 指
摘이 된 事項입니다.

○李康珍 委員; 文化 遺跡地表 調査를 의무적으로 하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徵候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義務事項으
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植物部長 李會鳳; 네, 그래서 최소화한 것입니다.

○李康珍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지금 時間이 2時 10分 前입니다.

우리 委員들로 보서는 지속적으로 質問하고 싶지만 關係公
務員들을 생각해서 중식시간 이후에 續開를 하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3時까지 停會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3時 52分 會議中止)

(15時 12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錫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

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質疑하실 委員님께서서는 質疑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김장주 委員; 김장주 委員입니다.

李龍宰 所長님, 여기 赴任하신 年度가 언제이셨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94年 5月 13日에 했습니다.

○김장주 委員; 야시장 撤去는 몇 年度에 했습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94年 6月 25日에 했습니다.

○김장주 委員; 한 달만에 하셨네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김장주 委員; 그런데 야시장 撤去를 하면서 그 분들로 하여금 既存 食堂, 賣店이 있는 것을 옆으로 치우고 또다른 特惠를 公式적으로 준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야시장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텐데 賣店 하나하고 食堂 하나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두 食堂 運營을 해서 그 사람들이 共同分配해 가는 것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 利益金을 가지고 傷痍軍警會가 워낙 많다 보니까 任意團體인데, 그것이 자기들 말로는 한 6·70名 된다고 그러합니다. 그것이 보니까 越南海兵隊 出身입니다. 그 利益金을 가지고 전에는 傷痍勇士들이 직접 안하고 特定人한테 줘서 거기에서 1/10을 받아서, 年 2億원 인가 3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傷痍勇士 任意團體를 運營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00坪을, 오시다 보면 우리 관문 200坪에서 不法으로 해서, 政府에서 묵인

해 줬죠.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못받는데 이번은 그 사람들 撤去하면서 收益金은 옛날보다 1/100 줄었지만 우리가 賃貸料를 받고 合法的으로 하라, 不法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33坪을 해 줬던 것입니다.

○김장주 委員; 所長님도 軍 出身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報勳法이 있고 國家에 有功하고 하신 분들에게 應分の 대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傷痍軍警들이 等級에 따라서 國家가 報勳 次元에서 충분한 예우를 法律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傷痍軍人들한테 囂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은 6·25직후입니다. 더군다나 文民時代가 돌아온 지금도 國家有功者라는 빌미로 그런 囂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合法的으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有功者에 비해서 二重의 惠澤을 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어느 機關에서도 어느 法으로도 保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李龍宰 所長님의 個人的 裁量에 의한 중복된 惠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部分에 대해서 是正을 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販賣施設이 77個라고 그러셨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조그만 것까지 77個입니다.

○김장주 委員; 자판기까지를 한 個로 計算한 것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김장주 委員; 그것을 언제 入札하셨습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것은 每年 年末에 契約期間이 1年 單位기 때문에 1年 끝나기.....

○김장주 委員; 契約期間은 1年이고, 또 1月 1日에 契約하는데 지금 하는 사람들이 公開入札로 入札한 시점이 있었을 것

입니다. 所長님이 오셔서는 公開入札하신 적이 없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김장주 委員; 隨意契約을 하셨을 것입니다.

隨意契約하신데는 法的根據는 있는 것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條例에 되어 있죠. 할 수 있도록.

○김장주 委員; 第11條第2項이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김장주 委員; 그런데 어찌해서 不動產投機抑制法도 있고 많은 抑制의 法들이 이런 특히 惠澤이 가는 것은 實需要者 예 를 들어서 사진이면 사진을 찍는 사람, 중국집은 중국집을 하는 사람한테 줘야 하는데 株式會社 동산, 대원, 돌고래휴게소, 형민관광, 연도 이 5個 會社한테 一括 公開入札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法的根據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 당시에 제가 오기 전 말씀인데 市議會하고 여러 機關에서 公開入札을 하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완전 公開競爭入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制限指名競爭入札을 했습니다, 결국은. 京畿道 內 그것도 大公園이 指定한 業體에 한해서 競爭에 참가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競爭入札이지 어떻게 보면 隨意契約 보다는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委員님들이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해서 이것을 段階的으로 解決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 제가 오자마자 94年 末에 저는 公開入札하려고 했습니다.

公開入札할 때 商人들 條件이 어떻게 不法建物 撤去도 안하고 이것부터 公開入札하느냐 해서 야시장 激去를 第1目標로 삼았고, 그 다음에 昨年에 하려고 하니까 1年만 더 달라, 우

리도 1年 동안 撤去準備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崔秉烈 市長하고 독대하는 過程에서 해라 하길래 1年間 留保規定을 두어서 이 商人들도 撤去할 時間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좋다, 그래서 96年 1月 1日附로 公開入札하는 것으로 市長方針을 받았던 것입니다.

○김장주 委員; 그런데 지금 이 契約書를 아직 資料를 提出 안해 주셔서 모르겠습니다만, 擔當課長님이 對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株式會社 동산 박희열 氏께서 식당을 2個를 하고 있고, 賣店을 13個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열이라는 사람은 직접 運營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 委員; 그러면 賣店 13個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轉轉貸한 것 아니겠습니까? 契約 違背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김장주 委員; 그것도 우리 李龍宰 所長님의 名譽에 지극히 손상이 가는 말씀입니다만 職務遺棄인 것 같습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是認합니다.

○김장주 委員; 조속한 是正을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96年度 1月 1日에 公開入札을 하기로 方針을 굳히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불쾌하시더라도 任職員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먹이사슬은 그 自體 內部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77個 業體가운데 任職員하고 關係되는 要所는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있습니다. 그 數를 소상히 밝혀서 公開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골조공사만 해서 내 줬습니다. 그러면 모든 業所를 할 때에는 인테리어를 해야 하니까 營業費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세속적으로는 이것을 權利金이라고 해서 商去來가 실제 되고 있습니다.

또 所長님께서서는 契約 延長을 하시면서 3年間을 口頭約束으로 했다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既存業者들이 有益費라고 해야 되겠죠? 營業有益費. 다시 말해서 施設費입니다. 이런 한 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施設도 해야 하고 책상도 놓아야 하고 또 주방시설도 해야 하고 하는 費用을 要求할 때 本 公園에서는 그 要求를 受容할 立場이신지, 그 部分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 문제는 委員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答辯드리기는, 제가 좀 檢討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私見 立場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주 委員; 그리고 契約違反된 사실을 指摘해서 通報를 했거나 告發措置를 한 경우는 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없습니다.

○김장주 委員; 그것도 職務遺棄인 것 같습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김장주 委員; 문제가 豫想되는 소위 지금 既存 業者들의 有益費 精算部分이 어느 形態로든지 整理가 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告發을 하든지 아니면 물어주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나라에 유일하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특히 서울市에서 運營하는 이 公園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리고 나무도 잘 자라고 動物들도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오늘 듣고 봤습니다.

우리 서울市民은 1년에 140億원이라는 돈을, 혈세를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서울시는 140億원의 돈을 넣고 公務員들은 고생을 하고 動·植物들은 잘 자라는데 되지 못한 사람들이 썩어서 이런 不正의 온상을 만들었는가, 어떻게 보면 좀 저같은 사람은 동물구경보다도 지금 이 動物園에 內在하고 있는 소위 業者들의 不正한 먹이사슬이 더 볼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改革의 意志가 충만하신 李龍宰 所長께서 在任時 이 위업을 꼭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白懿宗 委員이 要求한 資料, 또 제가 要求한 資料를 整理해서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이 일은 꼭 이루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質疑 마칩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錫浩; 李龍宰 所長 答辯해 주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金委員님 말씀하신 것은 열심히 해서 委員님들의 격려와 질책을 받아가면서 하여튼 사심없이 全 職員과 합심단결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필코 이것을 뿌리 뽑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이것 한 가지는 答辯해 주세요.

77個의 賣店 中에 職員들이 連結된 業所는 없는지, 이것 하나만 答辯해 주세요. 김장주 委員, 그렇죠?

○김장주 委員; 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죄송스럽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錫浩; 없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委員長 金錫浩; 다행입니다.

그러면 趙旬衡 委員, 質問해 주세요.

○趙旬衡 委員; 趙旬衡 委員입니다.

우리 많은 委員님들이 사실은 이 大公園에서 赤字가 134億 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疑問點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77 個 販賣所에 利害關係 거기에는 權利金이니 프리미엄이니 상당한 額數가 去來되고 있다 그 얘기는 우리 管理하는 立場에서 그 많은 돈을 赤字를 내고 있는데 그 販賣所에서는 많은 黑字를 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나 權利金을 주고도 여기를 들어오지 못해서 들어가려고 팔방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赤字가 안 나오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알겠습니다만 管理次元에서 130 내지 140億원을 赤字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利益權이 있는 販賣施設을 所長님이 직접 經營次元에 들어가서 그 赤字를 메울 수 없는가 해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 答辯 좀 해 주세요.

○委員長 金錫浩; 이해가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엄청난 赤字를 大公園에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黑字를 볼 수 있는 賣店 같은 것은 他人이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計劃을 變更시켜서 直營을 해서라도 赤字幅을 줄일 수 없느냐, 이런 의지는 없느냐 하는 내용의 質問입니다.

趙委員, 그런 얘기죠?

○趙旬衡 委員; 네.

○委員長 金錫浩; 答辯해 주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趙委員님 말씀에 答辯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直接 運營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 市民의 血稅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衷情에서 最高價格에 의한 公開競爭入札하면 현재 2億원만 받는 賃貸料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公開入札이란 그것도 目的이지만 公園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와 쾌적한 분위기인데, 너무 많습니다, 가게가. 그래서 이번 公開入札하면서 檢討하고 가게도 불필요한 것은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줄여서 꼭 필요한 것, 市民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가면서 깨끗한 음식,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檢討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直接運營하는 것은 公務員들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趙旬衡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赤字를 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公務員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各種 施設物에 들어가는 入場料도 안 받아야 될 것 같고, 지금 駐車場의 駐車費도 안 받아야 됩니다. 無料로 해야 됩니다. 市民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市民의 血稅로 이미 赤字를 보고 運營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는 왜 駐車費를 받으며 各種 施設에 대한 入場料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趙委員님, 아까 제가 報告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제 바람도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運營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一般 民營에서 運營하는 몇 십배의, 몇 분의 일인 최소한도를 市民들에게 負擔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여러 가지 教育次元도 있고, 또 이런 질서차원 또 이런 警覺心도 있고 또한 최소한 자본 취해서 入場料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趙旬衡 委員; 所長님의 말씀에 語弊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

면 駐車費는 그것이 計算이 뻔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표현을 제대로 못합니다만 그런 것에서는 봉사 비슷하게 赤字를 보면서 하고, 실제 賣店의 利益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赤字난 것을 메꾸기 위해서 生産工場에서 生産工場 價格대로 만약에 가져다 運營한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134億원이라는 赤字는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막대한 利益이 있는 것은 개인한테 넘겨주고, 利益이 없는 것은 우리 公園에서 맡아서 運營을 한다 이것은 問題가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錫浩; 所長님, 우리 趙委員이 質問하는 要旨는 꼭 入場料나 駐車料를 無料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애시당초 業務 報告時에 世界 5大 市 중에 하나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하셨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委員長 金錫浩; 그것으로 봐서 상당히 入場料를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報告를 했습니다.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한다면 駐車料도 안 받고, 入場料도 안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또 反對給付로 市民의 血稅로 이렇게 엄청난 赤字幅을 메꾼다, 최소한의 제로상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다소의 入場料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안에서 利益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하다못해 直營精神을 살려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 꼭 直營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서라도 赤字幅을 메꿔라 하는 그런 내용의 質問입니다. 좀 새겨들으세요.

答辯해 주세요, 좋은 案이 있느냐 答辯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이런 부분도 아까 綜合計劃을 세웠다고 그랬죠? 綜合計劃을 세워서 이 부분도 다음에 나오면 答辯해 주세요, 書面으

로 같이 기회 있으면 說明해 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柳德烈 委員, 質問해 주세요.

○柳德烈 委員; 柳德烈 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大公園이 202萬坪이라고 그랬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公園敷地로 지정된 것이 202萬坪입니다.

○柳德烈 委員; 公園敷地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投資額이 얼마쯤 됩니까?

土地, 施設費, 動物을 사오는데 들어가는 費用, 서울大公園의 開園 初期부터 지금까지 대략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開園 造成 當時 1,050億 원.

○柳德烈 委員; 그 다음에 그 뒤로 投資費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 豫算에 보니까 投資費가 33億원을 비롯해서今年度까지 해서 總 投資費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처음에 造成費 1,050億원에다가 그 뒤로 投資된 金額이 대략.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빼서 追後에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柳德烈 委員; 대략 2,000億원 정도 됩니까, 총 합쳐서?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 정도 안 되지만 정확히 報告드리겠습니다.

○柳德烈 委員; 土地部分에 대해서는 價格을 精算하지 않죠? 國有地인 土地, 市有地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柳德烈 委員; 지금 豫算을 보니까今年度 豫算歲入이 44億

원, 歲出이 178億원인데 순수하게 134億원이란 말입니다, 마이너스가. 그런데 歲入 44億원을 가지고 人件費 46億원 充當을 못하고 있거든요. 대개 현상유지는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자체적으로 들어온 收入을 가지고 人件費하고 經常費 정도는 充當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人件費도 充當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入場料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누가 결정합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저희들이 서울本廳 物價審議對策委員會가 있습니다. 거기 上程하면 거기에서 市議會 通過할 것이 있고 市議會 通過 안할 부분이 있습니다.

○柳德烈 委員; 公園管理事業所에서 案을 만들어서 市當局과 協議를 하고 일부는 市議會의 審議過程을 거치는 것도 있고, 거치지 않는 것도 있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柳德烈 委員; 그럼 지금 公園入場料가 다른 私企業들이 運營하는 公園入場料의 몇 %정도를 받고 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지금 1/4정도.

○柳德烈 委員;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所長이 생각하기에 收入을 가지고 최소한 人件費 내지 經常費 정도는 자체적으로 運營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만 봤을 때 今年 95年度에 딱 100億원이 損害거든요. 서울市民의 稅金이 投資費는 놔두고 현 상태로 運營만 하는데 100億원이 들어간다, 所長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저도 委員님 말씀대로 푼 푼만 되도 좋겠는데 전에 報告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收益事業 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푼푼되고 黑字나는 것은 民資施設이 저희들 無償使用期間이 끝났을 때

는 黑字가 되겠죠,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柳德烈 委員; 지금 뭔가 運營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運營이 經營合理化 次元에서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톡톡이나 톡톡 맞추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柳德烈 委員; 많이 赤字를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市民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최소한 赤字로써 千餘萬 서울市民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이 目的이라고 생각합니다. 公園의 目的입니다.

○柳德烈 委員; 그러면 서울大公園을 出入하는 觀覽客들이 서울大公園 오니까 야, 入場料가 싸고, 모든 施設이 정말 잘 되었고, 정말로 가 볼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公園은 運營을 그렇게 하는데 市民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所長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市民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入場料는 상당히 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運營하는 責任者이기 때문에 잘 한다, 못한다 答辯드리기는 그렇습니다.

○柳德烈 委員; 저는 오늘 와서 이 報告書를 보면서, 제가 늦게 도착했습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서울大公園의 投資費는 놔두고 人件費, 經常費, 收入이, 최소한 經常費는 놔두고 人件費조차 充當을 못하는 이런 運營의 實態, 이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定員이 283名으로 줄인 경우가 313名에서 이것 어떤 節次를 거쳐서 줄였다고 그랬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本廳하고 최소한의 人員으로 大公園을 運營할 수 있는 人員이 뭐냐, 불필요한 組織이 뭐냐, 그래서 係 같은 것 24係를 21係로 3係를 縮小했고,

○柳德烈 委員; 그러니까 이를테면 經營合理化 次元에서 管理改善을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人員을 縮小를 하고, 최대한으로 한 것이 이런 정도라 이것이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물론 그 시점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柳德烈 委員; 그러니까 서울시 當局도 이런 정도는 서울시 市民의 血稅로써 損害를 봐도 무방하다, 지금 이렇게 해서 運營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問題는 이렇게 100億원씩 投資費를 놔두고 100億원 이상씩 損害를 봐 가면서 市民들은 서울大公園을 와서 참 싸게, 즐겁게, 좋은 施設에서 하루 쉬고 간다 이런 생각을 별로 統計적으로 보면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저 자신부터 그렇고, 아까 어느 委員님이 指摘을 했지만 서울에서 가 보고 싶은 곳, 서울大公園 이렇게 얘기하는 市民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報道를 내가 어디서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資料를 가지고 계세요? 서울에서 가보고 싶은 곳, 참 좋다 서울大公園, 거기 정말 우리가 낸 稅金으로 運營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施設도 잘 돼 있고, 친절하고, 하루쯤 家族과 같이 나들이로 쉴 수 있을 만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市民들이 가보고 싶은 곳 서울大公園이다 이렇게 어디에서 한 번이나 報道되었거나 그런 資料를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1년에 有料 入場客 800餘萬名하고, 한마당공원에 해마다 1,000餘 名이 大公園을 찾는

다는 것은 말로 안하더라도 大公園이 괜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柳德烈 委員; 그래요? 資料에 보니까 748萬名이 1년에 온다고 그랬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有料 入場客 數입니다.

○柳德烈 委員; 748萬名은 아까 所長 말씀으로 서울랜드에 들어가는 入場客과 서울大公園에 들어가는 入場客이 몇 對 몇 정도 됩니까? 다시 얘기를 해서, 94年度 昨年에 우리 서울大公園에 들어온 入場客이 몇 名입니까? 94年度. 昨年에 여기 서울大公園 들어온 入場客.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748萬名입니다.

○柳德烈 委員; 748萬名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柳德烈 委員; 서울大公園에, 서울랜드 말고, 서울大公園에 入場한 入場客 748萬名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아, 動物園 말씀하시는 것이죠?

○柳德烈 委員; 우리 서울大公園.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서울大公園 內에 랜드가 있고 動物園이 있습니다.

○柳德烈 委員; 그러니까 랜드 한 것은 놔두고 우리가 收入으로 잡는 서울大公園 여기에만 순수하게 들어오는 入場名, 昨年에 몇 萬名 나와 있잖아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300餘 萬名이 되겠습니다.

○柳德烈 委員; 300餘 萬名. 그러면 虛數를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실지 서울大公園하면 놀이시설이라든지 복돌이동

산 가서 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래 서울大公園의 趣旨가 그런 趣旨는 아니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748萬名 中에 300萬名 정도밖에 우리 서울大公園을, 어찌 보면 순수한 서울大公園은 利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저쪽에 서울랜드 가서 놀이기구 타고 이렇게 이런 것은 여기 아니고도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가 있고, 이런 희귀한 動物들이 大韓民國에서 유일하게 이 곳 한 군데만 와 있는 서울大公園 動物園 이쪽을 市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公園이 처음에 設立이 되었는데, 순수하게 入場한 사람은 300萬名밖에 안되지 않아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動物園 有料 入場客이 그렇습니다.

○柳德烈 委員; 그런데 대개는 지금 모든 管理費라든지 人件費가 저쪽은 상관없이 없고 이쪽만 管理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動物園하고 公園 전체죠.

○柳德烈 委員; 아니, 전체 公園 中에서 서울랜드하고 복돌이동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 民間業者가 管理를 하고 있잖아요. 실지는 우리 職員들이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柳德烈 委員; 1년에 한 번씩 報告만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豫算에서 人件費 46億원, 그 다음에 經常費 98億원, 이것은 서울랜드나 복돌이동산을 出入하는 入場客이라든지 그쪽에 管理를 해서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計算을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入場料가 23億

8,000萬원인데 300萬名 잡고도 어른이 1,500원, 청소년이 1,200원, 어린이가 700원, 어린이 700원씩만 計算을 해도 $3 \times 7 = 21$, 21億원이란 말이에요. 어른은 하나도 안 들어왔는지. 平均的으로 計算을 했을 때 1,500원, 1,200원, 700원, 이러면 平均的으로 한 1,000원은 될 것 같은데 1,000원 計算해도 300萬名이면 30億원인데 어떻게 23億원밖에 안 되는지, 이것 나 얼른 計算이 안 나와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님, 그것은 今年 95年 6月 10日 이후 引上額이고, 引上 前은 그렇지 않습니다.

○柳德烈 委員; 그 前은 얼마였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引上 前 金額은 어른이 1,150원, 청소년이 950원, 어린이가 540원입니다.

○柳德烈 委員; 지금 말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다른 것은 놔두고요, 서울大公園이 投資費는 좋습니다. 投資費는 어차피 投資를 하기 위해서 100億원이 들어가든 1,000 億원이 들어가든 별 問題가 안되는데 도대체 여기에서 나오는 全體 收入, 入場料, 그 다음에 委託管理料, 이 돈을 전부 합쳐도 이 公園에 와 있는 人件費를 充당하지 못하는 이런 運營狀態, 이것이 어디에, 어느 企業에, 어느 會社에, 어느 公務員集團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나는 잘 理解가 되지 않아요. 전혀 理解가 되지 않아요. 만약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損害를 보는 것이 서울市民을 위하는 것이고 서울市民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利益을 많이 남겨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運營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指摘을 했지만 저도 바로 그 部分입니다.

運營狀態가 定員이 283名인데 現在員이 287名, 불과 4名밖

에 超過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赤字를 봐가면서 管理所長은 公務員들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理由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管理改善을 해서 定員을 이렇게 줄였으면, 우리가 지금 즉 業務報告를 받고 있지만 定員보다 더 많은 現在員을 본 적이 없어요. 利益이나 많이 남긴다하면 5名이고 10名이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國民의 稅金 갖다가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運營하느냐 이것입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柳德烈 委員; 무엇을 착각한다는 것이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원래 公園의 設置目的이.....

○委員長 金錫浩; 所長, 여기에서 착각이라는 것이 무슨 用語예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죄송합니다.

원래 公園 設置目的이 서울시민이 돈을 좀 덜 내더라도 千萬名이 와서 즐기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人員이라는 것이 委員님 말씀대로 우리가 無形의 財産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動物園에서 우리가 收益되는 것이 動物園 內에 있는 가게하고 植物園의 화초 이쪽인데 우리 서울시 진짜 財産은 무엇이나 하면 284萬坪입니다. 284萬坪 땅과 또 植物部 人員도 있고 職員들이,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無形財産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안타까운 것이 委員님 말씀대로 動物, 예를 들면 돌고래쇼 하면서 돌고래쇼 入場料 받는 것이 받아 물값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못 올리느냐, 이것 料金を 올리려면 公園이다, 또 物價와 관련된다 해

서 사실 저희들도 올려서 委員님들한테 우리 참 今年에는 黑字를 봤습니다, 이렇게 몇몇하게 하고 싶은데 단돈 10원을 올리려 하면 이것이 EPB問題도 있고, 物價 여러 복잡합니다. 왜, 公園 아니냐. 公園은 분명히 國民들한테 無料로라도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段階的으로 하는 것이 그러면 委員님 말씀대로 우리 內部에서 稅세를 줄이는 方法이 뭐냐 해서 하나 하나 是正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柳德烈 委員; 所長께서는 조금 認識, 思考의 轉換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損害를 보는 것이 당연한 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損害를 보는 것이 결국에 入場料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연히 損害를 보는 것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觀覽客들이 受益者負擔의 原則에 의해서 다소의 入場料를 負擔하는 것은 1,000원에서 천이삼백원, 천사오백원 받는 것은 그렇게 지금 서울市民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1,200원 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1,300원이나 1,400원으로 올렸다. 아, 비싸서 안 온다. 1,200원 할 것인데 1,100원, 아, 싸서 온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 年 人員 總 300萬名 정도가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실지로 서울大公園 이렇게 많은 施設을 해서 아까 202萬坪의 土地分은 놔두고라도 그 동안의 施設費, 그 다음에 動物購入費, 여러 가지 投資費가 2,000億원이 넘는, 그러면 土地分까지 합치면 어마 어마한 돈입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大公園을 運營을 하는데, 물론 서울市民들에게 많이 弘報를 해서 觀覽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서울大公園에서 서울市民들이 많이 오도록 弘報를 좀 합니까?

-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 柳德烈 委員; 어떻게 弘報를 하죠?
-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1년에 큰 主要行事を 많이 행사함으로써 新聞 내지 放送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行事を 통해서 한번 와 보시고 또 오게 되고, 예를 들면 展示會다, 꽃길걷기대회다, 마라톤대회다, 山林浴場 開場이다, 이런 것을 각 新聞社에 상당히 報道를 해 줌으로써 그런 次元에 하나 하나.....
- 柳德烈 委員; 어느 部署에서 합니까? 여기 弘報課가 없는데, 弘報室도 없고. 어느 部署에서 합니까?
-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저희들이 事業을 하게 되면.....
- 柳德烈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部署 責任者가 누구죠?
- 管理部長 金盛達; 管理部長입니다.
- 柳德烈 委員; 管理部에서 합니까? 지금 보니까 平日에는 1萬 3,000名이 入場을 하고 日曜日, 公休日에는 5萬 1,000名이 入場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평균적으로?
- 管理部長 金盛達; 네.
- 柳德烈 委員; 그러면 公休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公休日하고 平日하고 入場料가 같죠?
- 管理部長 金盛達; 같습니다.
- 柳德烈 委員; 우리가 열차를 타보면 週中에는 열차가, 鐵道廳이 지금 公社化를 지향하면서 週中에는 열차료를 싸게 해 줍니다. 그래서 週中에 많이 利用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서울大公園에서 지금 公休日이나 週中이나 똑같이 入場料를 받는데 정말로 많이 市民들에게 開放을 하고자 하면 가령 이것이 꼭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뭐

라고 할까요, 언제든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언제보다 언제가 좀 싸다 그러면 그때 많이 더 오게 됩니다.

그러면 月曜日부터 金曜日까지 같은 入場料가 1,000원이면 한 700원 정도 받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서울市民들에게 弘報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觀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각自體가 서울大公園이 많이 赤字를 보는 것이 서울市民들에게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다. 많이 赤字를 안 보는 것은 곧 여러분들한테 호주머니에서 돈을 뺏는 것이다, 이런 認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思考에서 轉換을 하세요. 轉換을 해서, 이를테면 週末같은 때는 5萬名씩 7萬名씩 사람이 오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면 週中같은 때는 入場料라든지 다른 部分을 싸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 때 오도록 그렇게 弘報를 해서 週中같은 때 많은 사람들이 야, 週中에는 서울大公園이 싸니까 거기를 좀 가보자. 예를 들어서 駐車場問題도 平日에 2,000원 했던 것을 예를 들면 週末에는 3,000원, 4000원 한다든지 뭐 이런 差等を 두어서 서울大公園을 運營하는데 조금 經營을, 요즘에 趙淳 市長이 오셔서 經營마인드 經營마인드 하시는데 그런 次元으로 서울大公園을 經營을 合理化해서 經營改善을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모든 분들이 努力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죽 와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所長以下 모든 분들이 서울大公園이 많이 損害를 보는 것은 곧바로 서울市民들에게 많이 惠澤을 주는 것이다. 왜냐, 이것을 올리면 여러분들한테 入場料를 내서 호주머니를 끌어와야 된다, 이 생각을 바꾸세요. 정말 이것은 바꾸세요.

그 先進國들의 公園形態가 어떻게 運營되는지 資料로 가지고 계시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柳德烈 委員; 대략 다른 데 先進國들의 公園運營 實態도 이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赤字를 내고 이런 방향으로 運營을 합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제가 많은 곳은 안 가봤지만.....

○柳德烈 委員; 아니, 그러니까 대략. 전부 說明하려면 힘드니까 나중에 資料로 주시고, 대략 어떻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自立度가 저희들의 반밖에 안 됩니다, 유럽같은 경우에는.

○柳德烈 委員; 그렇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柳德烈 委員; 所長의 個人的인 意見을 대략 묻겠습니다.

이 서울大公園을 民間人에게 全體的으로 委託管理하도록 하면 그래도 이렇게 많은 赤字를 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民間人들한테 委託하면 施設과 與件이 서울에서 제일 좋으니까 바로 黑字가 되겠죠. 단, 料金體系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변하겠죠. 龍仁 自然農園하고 맞먹게 되겠죠.

○柳德烈 委員; 제가 여쭙보는 것은 꼭 入場客들의 入場料, 나도 그 얘기는 하겠어요. 1,000원 받는 것을 한 사람당 1萬원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質問하는 趣旨를 所長 정도 되시면, 제가 아까 履歷을 보니까 今年 마흔 세 살에 副理事官을 다셨기 때문에 상당히 출세가도를 달리신 분이고, 다른 분들도 죽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質問한 趣旨를 좀 아세요. 1,000원짜리 入場客 1萬원씩 2萬원씩 받으면 누구든지 그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런 次元

이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入場料를 받되 經營合理化를 해서 뭔가 이렇게 赤字 보지 않도록, 나는 할 수 있다고 民間人이 運營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所長 個人的은 意見은 어떻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저도 柳委員님에 100% 공감합니다. 民間人이 運營하면 일단 組織부터 줄이겠죠. 減量 經營하지 않겠습니까?

○柳德烈 委員; 그런데 所長은 그런 計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당초에.....

○柳德烈 委員; 所長님이 94年 5月 13日에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말씀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劃期的인 變化를 해 보실 그런 意向은 없으신지?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와서 劃期的인 公園計劃方案 7가지를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서 한 예로 委員님 말씀대로 駐車場問題도 休日과 平日, 또 多段階 運營하는 것 檢討를 다 해 봤는데 현실상 어려운 장벽에 부딪치기 때문에 昨年 3月 12日 近隣公園으로 바뀔에 따라 전반적으로 委員님 말씀대로 經營改善의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나간, 柳委員님 말씀 저도 100% 共感하고 있습니다.

○柳德烈 委員; 共感하시면 정말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어느 集團이나 어느 組織이든 간에 人件費와 經常費 정도는 그 組織 內에서 自體負擔을 하는 것이 原則으로 돼 있는데 서울大公園이라는 특수한 組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勘案을 하더라도 제 느낌은 많이 損害를 보고, 많이 赤字를 보는 것이 마치 서울市民을 위하는 것인양 이렇게 포장되

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文民時代에 民選市長 모시고 이런 부분에 어떤 大的인 思考의 轉換들이 있어야 되겠다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委員님들께서 서울랜드라든지 놀이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民間業者들이 運營하는 運營實態에 대해서 어디까지 간섭을 합니까? 아까 1년에 한 번 報告만 받는다고 그랬는데, 전혀 關與를 안 합니까? 運營하는 데 대해서?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組織運營 자체는 저희들이 關與를 못합니다만 한 예로 大公園內 서울랜드에서 安全事故가 났다 하면 管理廳 責任者 立場에서 상당히 道德的 負擔이 가겠죠. 그런 면에는 安全事故 내지 아까 어느 委員 말씀대로 市民의 不便事項을 提報받으면 社長과 任員을 불러서 是正指示를 하고,

○柳德烈 委員; 그럼 入場料를 받는 것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決定을해서 자체적으로 받습니까, 大公園의 審議를 받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本廳의 審議를 받습니다.

○柳德烈 委員; 저쪽에 내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柳德烈 委員; 거기에서 運營하는 모든 附帶施設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렇습니다.

○柳德烈 委員; 전체가 서울市の 統制를 받도록 돼 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柳德烈 委員; 自體的으로 料金 올리거나 내리지는 못한다, 그렇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柳德烈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大公園을 왔다간 서울市民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돈을 投資하고 税金으로 운영되는 서울大公園이 정말로 갔다 오니까 참 잘 갔다 왔다, 기분이 좋다,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 輿論을 알 수는 없지만 休日に 오면 복잡하고, 바가지 씌우고, 불친철하고, 이렇게 運營을 하면서 1년에 130億원, 140億원씩 投資費는 두고라도 100億원 이상을 損害를 봐가면서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지, 나는 그래서 엄청나게 利益을 남기는 集團들이고, 장사하는 集團들이구나 평상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報告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서울大公園을 監督하고 있는 管理所長 立場에서는 任職員 이하 모든 公務員들은 말할 것도 없고 들어와 있는 業者들에게도 철저한 敎育을 시켜서 정말로 市民들이 한번 더 가보고 싶은 곳, 서울大公園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홍진구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홍진구 委員; 78年度에 起工式을 했죠? 그런데 여기 公園으로 指定이 언제 됐습니까?

起工하기 전에 됐겠죠, 서울大公園으로.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起工 前에 指定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구 委員;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78年 10月 30日 起工을 했는데 그 때 당시 202萬 坪으로 指定이 됐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植物部長으로 하여금 答辯

드리겠습니다.

○홍진구 委員; 네.

○植物部長 李會鳳; 당초 저희가 着工하기 전에는 都市計劃區域이 서울區域이었습니다. 그래서 淸溪山 一帶 淸溪山公園으로 함께 묶였었기 때문에 面積이 지금 面積보다 約 1/3이 더 많았습니다.

○홍진구 委員; 많은데 오히려 줄어들었습니까?

○植物部長 李會鳳; 네, 줄었습니다.

○홍진구 委員; 그러면 줄었으니까 지금 현재 202萬 坪을 78年 10月 30日 이전이죠?

그러면 여기에 私有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植物部長 李會鳳; 202萬 坪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約 10萬 坪, 12萬 坪 정도가 私有地가 됩니다.

○홍진구 委員; 그런데 12萬坪 中에서도 특이하게 김재춘 씨라는 분이 60萬 坪을 私有地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植物部長 李會鳳; 그것은 일단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訴訟 中에 있는 것입니다.

○홍진구 委員; 넘어왔는데 訴訟 中에 있다?

○植物部長 李會鳳; 저희한테 登記는 넘어왔습니다.

○홍진구 委員; 그러면 다른 분 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植物部長 李會鳳; 그 사람이 땅이 넘어온 과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訴訟을 건 것입니다.

○홍진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12萬 坪이라는 땅을.....

○植物部長 李會鳳; 그것은 補償이 안 된 것입니다.

○홍진구 委員; 김재춘씨 땅만 해도 60萬 坪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植物部長 李會鳳; 그것은 저희 것으로 다 登記가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辨償을 해 줘서 買入된 것입니다.

○홍진구 委員; 辨償을 다 해 줬습니까?

○植物部長 李會鳳; 네, 해 준 것입니다.

○홍진구 委員;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植物部長 李會鳳; 10萬 坪 이것만.....

○홍진구 委員; 60萬 坪이 아직.....

○植物部長 李會鳳; 그것은 김재춘씨 땅은 아닙니다.

○홍진구 委員; 그러면 이것이 78年 10月 30日이라면 근 20年이 다 됐는데 서울시가 時效取得으로 그냥 아주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공산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20年이면 時效取得이 되는데. 아무리 私有財産이라 하더라도 20年을 占有하고 있으면 時效取得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年數도 불과 1·2年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이것을 체결을 해야지, 民間人 私有財産을 그냥 그렇게 損害보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植物部長 李會鳳; 그 중에는 대부분이 本人은 買收에 응하지 않았고, 당시에.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사지 않으려고 해서 買入하지 않은 件이 아니고 사정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응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法的으로 살 수가 없는.....

○홍진구 委員; 아니, 그러면 收用이라도 해서 補償을 해 줘야 당연하죠, 남의 私有地 땅을 아무리 國家라 하더라도 그냥 使用을 하고, 國家도 民間人이 國家 땅을 使用하면 엄연히 使用料를 辨償하고, 승낙을 하지 않고 無斷占有를 했으면 辨償金을 賦課를 하면서 왜 國家는 그러한 民間人 땅을 民間人이 쓰면 전부 그것을 몇 십년 것까지 다 받아가면서 어째서 서울시는 私有財産을 占有해서 使用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使用料를 주지 않고 辨償金도 내지 않고, 또 땅 補償도 안해 주고 그대로 使用하느냐,

○委員長 金錫浩; 이렇게 해 주세요.

地方自治法에 의하면 法에 繫留 中인 事項은 議會에서 發言 할 수 없도록,

○홍진구 委員; 法에 繫留 中인 事項은 김재춘씨 땅만 그런 것이고 나머지 12萬 坪에 대해서 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서울市도 이것을 報告해서 補償을 할 수 있는, 民間人 남의 땅을 그냥 다 뺏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서울市民이 다 共同으로 使用하는 땅이지만. 이 問題는 所長님 答辯해 주세요. 어떻게 處理를 앞으로 할 計劃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님 말씀 듣고 나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아까 委員님들께서 질책하시는 赤字運營 때문에 사실 私有地 12萬 坪에 대해서는 補償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豫算, 今年에 투쟁해서 댄 것이 급한 흥안농조 저수지 땅 3,800坪에 대해서 6億원을 받아서 9월에 補償을 합니다만 委員님 말씀 듣고 느낀 바는 이 問題는 큰 차원에서 봐서 어떻게 補償을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이것 뚝뚝만 하고 赤字만 하면 收益事業을 할 수 있어서 서울랜드에 뚝뚝만 하면 補償을 해 달라고 울겠는데, 뭐하면 赤字보는 놈들이 무슨 하는데, 委員님 말씀 명심해서 어떻게 補償을 다단계로 建議를 한번 해 보고,

○홍진구 委員; 서울市에 補償要請을 해야죠, 要請을 해서, 本委員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赤字運營이 되니까 남의 땅 補償을 못해 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이것이

돈을 어디 補償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땅값을 치루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것은 買入하는 方法으로 해서 民間人에게 私有地 땅이 損害가 나지 않도록 措處를 취해야 한 다라고 本委員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質問을 드린 것입니다.

빨리 措處를 취해야 될 것이예요, 왜냐 하면 이것이 20年 되고 나면 自動的으로 時效取得으로 政府땅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民間人이 私有地 땅 뺏기는 수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것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裁判에서 時效取得 期間이 넘어가버려, 그러면 自動的으로 登記가 넘어가버려 本人이 도장 안 찍어도 넘어가버려. 國家에서 그냥 時效取得해 버려. 이런 問題가 國民에게 損害가 없는 方向으로 措處를 취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努力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大公園 內에는 여러분의 土地가 未決件으로 돼 있고, 또한 그 중에서 유사한 土地가 裁判에 業留 中에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所長은 그 점을 留意해 주시고 자칫 잘못 答辯하다가는 訴訟 中에 있는 것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엄청난 서울시 財政에 피해 줄 수가 있어요. 잘 알아서 答辯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朴贊國 委員, 質問해 주세요.

○朴贊國 委員; 朴贊國 委員입니다.

우리 所長께서 赴任하신 지 1年 3個月 정도 되셨죠? 赴任하셔서 식당이 몇 個이고, 매점이 몇 個였습니까? 赴任하실 적

에 業務報告를 받으실 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식당 6個, 종합매점 6個, 간이매점 13個,

○朴贊國 委員; 식당 6個, 종합매점 6個, 간이매점 13個. 그러면 지금 방금 본대로 우리 業務報告에 보면 식당이 6個 있고, 賣店이 28個로 돼 있단 말씀이에요.

뭐 우리가 綜合賣店이고 簡易賣店이고 그것은 같이 따져도 관계 없겠죠? 賣店으로 따져도 관계없을 것 아닙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朴贊國 委員; 그때 당시에 赴任하실 때 식당이 6個 있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朴贊國 委員; 틀림없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朴贊國 委員; 그러면 綜合賣店하고 簡易賣店은 賣店으로 똑 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綜合賣店은 어떤 部分을 綜合賣店이라고 하고, 簡易賣店은 어떤 데를 簡易賣店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解釋을 해 주십시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綜合賣店은 建물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簡易賣店은 아까 오시다가 길에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簡易賣店이라고 합니다.

○朴贊國 委員; 그러면 簡易賣店에서는, 즉 말해서 음식물 같은 것을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술을 제외하고 이런 떡볶이나 라면 같은 것, 핫도그 같은 것, 그런 것은 팔게 되어 있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러면 所長께서 赴任하시면서 분명히 식당이 6個로 報告 받으셨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朴贊國 委員; 그러면 우리 施設管理課長 계십니까?

92年 8月 1日에 赴任하셨죠?

(○施設管理課長 朴柱男 네.)

그러면 좀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식당이 몇 個 있었습니까?

(○施設管理課長 朴柱男 식당은 저희 所管이 아니라 확실히.....)

業務所管이 아니지만 施設했을 때 施設課長이 할 것 아닙니까.

(○施設管理課長 朴柱男 施設은 당초에.....)

○委員長 金錫浩; 施設課長, 앞에 나와서 하세요.

○朴贊國 委員; 왜 내가 施設課長한테 이 質問을 하느냐 하면 가장 오래 되셨어요. 가장 오래 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赴任하셔서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勤務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식당이 몇 個 있었나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施設管理課長 朴柱男 그때 당시하고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습니까?

(○施設管理課長 朴柱男 네.)

식당 6個로 변함이 없어요? 틀림 없습니까?

(○施設管理課長 朴柱男 네, 틀림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제 質問 받으세요. 지금 현재 綜合賣店, 簡易賣店은 일반 통상적 개념으로 해서 賣店으로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모

든 배설물이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식당하고, 綜合賣店, 簡易賣店 이러한 데에서 쓰는 물이 지금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이것입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綜合賣店은 그것이 지금 下水處理되어서 委員님 들어오실 때 본 下水處理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簡易賣店은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비닐봉투에 담아서 回收해갑니다.

○朴贊國 委員; 찌꺼기는 당연히 收去가 되겠죠. 거기에 물을 使用할것 아닙니까.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해서 봉투에 집어넣어서 버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쁜 물은 어디로 흘러나가느냐 이 말씀이에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지금 管理課長으로 하여금.....

○朴贊國 委員; 네,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施設管理課長 朴柱男 지금 저희는 分流下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汚水는 전부 全量 下水處理場으로 流入이 되고 있습니다.)

下水處理場으로, 그러면 綜合賣店이나 簡易賣店이나 식당이나 해서 모든 使用한 물이 전부 下水處理場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 틀림 없습니까?

(○施設管理課長 朴柱男 네, 틀림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런 質問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市에서 가장 급선무로 행해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趙淳市長께서도 말씀하셨듯이 交通問題라든가 住宅問題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問題에, 아마 제가 볼 때 세 번째로 들어가는 部分이 環境問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同僚委員 李康珍 委

員께서도 環境問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部分에 대해서 제가 듣는 바로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所長께서 이 部分이 방금 答辯해 주신대로 사실에 틀림 없느냐, 그래서 제가 資料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公園을 施設할 때에 原圖面에 의해서 식당은 어디 어디 어느 곳, 아마 目的이 되어 있을 것이예요. 綜合賣店은 어디 어디, 簡易賣店은 어디, 施設 당시에 그 計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나와 있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에 施設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施設하고 變動이 없어야죠. 맞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簡易賣店은 일부 運營上 問題 때문에, 또한 入場客들의 便宜 때문에 약간 變動된 것이 있습니다.

○朴贊國 委員; 약간 變動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變動된 데에 의해서 下水施設까지 제대로 變動시켰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것을 고려한 줄 알고 있습니다.

○朴贊國 委員; 그래서 그 圖面을 저한테 資料로 내 주세요. 저희들이 애초에 이 公園 施設할 때의 圖面이 6個 식당이 되었던 5個 식당이 되었던, 또한 애초에는 3個였었는데 3個를 언제 늘려서 어떤 方法에 의해서 늘렸다, 또한 綜合賣店이라든가 簡易賣店이라든가 이런 賣店에 대해서 市長 裁可를 얻어서 이 賣店을 늘리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所長 職權에 의해서 賣店이라든가 이런 簡易施設을 하게 되었는데, 이 部分을 전체 總括해서 資料로 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겠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所長은 무슨 內容이나 하면, 서울大公園을 建立할 당시에 都市計劃施設決定을 받았을 것이에요. 받았을 당시에 賣店은 어디 어디 몇 군데 이렇게 내겠다는 식으로 施設決定을 받았을 것이에요. 받은 이외의 簡易賣店이나 식당을 增設했다라면 增設한 事由 내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利益, 어떠한 利益을 추구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선별해서 書面으로 提出해 주세요.

○朴贊國 委員;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랜드 부분을 제가 指摘을 했었어요. 그 서울랜드 部分까지 저한테 資料를 넘겨주셔야 됩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朴贊國 委員님, 內容이 그것이지요?

○朴贊國 委員; 네.

○委員長 金錫浩; 李康珍 委員, 質問해 주세요.

○李康珍 委員; 時間이 계속 지체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質問을 드릴 테니까 說明을 길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對答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서울大公園에 대한 業務報告 時間이든지 行政監査 時間에 質疑를 하기 위한 參考資料로 活用하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對答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都市公園에서 近隣公園으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建蔽率이 굉장히 높아졌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6·7배가 늘어났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때 建蔽率을 算定하는데 서울랜드가 포함이 됩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전체 다 포함됐죠. 公園全體.

○李康珍 委員; 현대미술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저희들 公園 內에 있는 것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都市公園일 때에는 현대미술관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大公園 자체는 損害를 많이 봤네요. 현대미술관 자체가 큰 建物を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것을 損害 봤다고.....

○李康珍 委員; 損害를 본 것이죠. 近隣公園으로 바꾸기 위한 努力을 했던 理由 中の 하나가 서울大公園에 많은 施設을 設置하기 위해서 努力을 했잖아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현대미술관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大公園이 設置할 수 있는 建物도 많이 制約을 받아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울大公園의 놀이시설은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들어갑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서울大公園에서 놀이시설을 하나씩 늘릴 때마다 서울大公園은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建造物을 設置하는데 制約을 계속 받아 왔네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李康珍 委員; 서울랜드가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서울랜드 것이 서울시 것이니까요, 財産은.

○李康珍 委員; 현대미술관이든 다 포함이 되어서 建蔽率을

算定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李康珍 委員; 그러면 都市公園에서 近隣公園으로 바뀐 것은 全體 數地를 다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李康珍 委員; 그리고 두 번째로 質問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大公園을 2004年 7月까지인가 無償賃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無償賃貸의 期限을 算定한 法的根據가, 제가 아까 잠깐 물어 봤는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확한 法, 施行令, 條例, 規則 어디에 몇條 몇項에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無償賃貸의 根據, 그리고 無償賃貸의 期限을 算定한 根據를 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 質問이 끝날 때쯤 바로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法條文을 저한테 불러 주실 필요는 없고, 무슨 法 몇條 몇項 이런 식으로.

○委員長 金錫浩; 所長말이죠,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李康珍 委員이 똑같은 얘기인데, 가기 전에 여기 定款이 있어요. 定款하고, 條例하고, 契約書 있죠? 지금 準備 빨리 準備시키세요. 그것을 주면 契約書 보면 法 몇條 몇項에 의해서 契約를 했노라고 적혀 있을 것이에요. 그것 보고 하면 되는 것을 자꾸.....

○李康珍 委員; 제가 이 質問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제가 昨年 行政監査 速記錄을 보니까 많은 委員님들이 이 質問을 많이 하셨어요. 서울랜드와 관련해서 無償賃貸를 했는데 速記錄이 오타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메모를 해 온 데 보면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 第23條第1項을 適用하느냐 第7

項을 適用하느냐에 따라서 期間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 第23條第1項과 第7項을 아무리 봐도 이것은 無償賃貸에 대한 部分이 아니고 貸付料 또는 使用料의 料率을 設定하고 있는 것이라서 도대체가 이것이 지난번 速記錄만 가지고 理解가 안 되기 때문에 無償賃貸를 한 根據, 所長님, 다시 제가 要約해서 말씀드릴게요.

無償賃貸를 한 根據와 관련된 法, 施行令, 條例, 規則, 그리고 無償賃貸의 期限을 設定한 16年 4個月, 그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룡열차를 設置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期限이 算定되고, 무슨 또 高架의 열차를 設置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期限이 算定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重複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一括적으로 어떤 根據에 의해서 算定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提示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알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委員님들이 서울大公園의 赤字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할 때에 所長님이 계속 豫算確保 問題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3年度 豫算인가 94年度 豫算에 서울市議員들이 努力을 많이 해서 여기 職員 沐浴施設을 할 수 있는 豫算을 6億원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都市公園에서 近隣公園으로 用途가 바뀌는 그것이 時期가 늦어져서 6億원이 不用處理가 된 적이 있어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93年度에 그렇게 됐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때에 所長님이 市議會에서 뭐라고 말씀하셨

느냐 하면 대단히 미안하다, 市議員들이 努力해서 豫算을 確保해 줬는데 그 豫算을 제대로 執行을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어요. 누누이 하셨는데, 지금도 豫算 타령을 많이 하시는데 豫算 타령을 하시기 이전에 豫算을 주려면 具體的이고 合理的인 事業計劃과 그 豫算의 效用性 이런 것들이 檢證이 되어야지 市議會 議員들이 努力을 해서 豫算을 確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려면 오늘 같은 날, 아니면 9월에 臨時會가 있는 날 서울大公園에 이런 展示的인, 저는 이것을 展示的이라고 보는데 展示的인 業務報告보다는 보다 더 진솔한, 우리의 實情이 진짜로 이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서울시에 이만큼 豫算을 받으면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보다 진솔한 業務報告를 하셔서, 이 중에서는 앞으로 豫決委에 들어가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가 所管 常任委員會이니까 所管 常任委員會 豫算審議 때 서울大公園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100億원 赤字가 問題가 아니라 서울市民의 休息과 精神的 健康을 위해서 필요한 公園이니까 豫算을 더 支援해 주자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서울大公園 自體 內에서 그런 準備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豫算이 없어서 뭘 못한다, 豫算이 없어서 우리는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公務員 社會의 참 잘못된 점인데 그러시지 말고, 이런 事業을 우리는 정말 필요해서 하고 싶은데, 이 정도 豫算이 필요한데 이 豫算은 꼭 서울시에서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市議員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런 효과가 날 것입니다. 이런 計劃을 가지고 市議員들로 하여금 협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감사합니다.

○李康珍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賣店과 관련되는 質問을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問題이고, 그것이 서울大公園의 經營에 있어서 어찌면 획기적인 問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大公園의 賣店管理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나머지 地方公園이든 아니면 서울시가 管理하고 있는 陵洞어린이公園 이런 데 賣店과 관련돼서 좋은 先例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大公園의 방향이 앞으로 많이 左右하리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서울大公園의 賣店은 당연히 公開入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울大公園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隨意契約 아니면 대원관리가 받아서 다시 누구한테 주었던 이런 여러 가지 問題들이 발생했는데 그런 問題를 다 차치하고 隨意契約을 했다는 자체는 問題가 있습니다.

왜, 市民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찍부터 公開入札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公開入札의 근거는 무조건 높은 價格을 써낸다고 해서 줄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事業計劃과 그 事業計劃의 타당성을 檢討한 상태에서의 公開入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는데 나는 앞으로 음식점을 해서 서울大公園에 2億원을 내겠소, 한 사람은 1億 5,000萬원만 내겠소 그랬을 때 1億 5,000萬원 내겠다는 사람이 보다 더 맛있는 음식으로, 보다 더 저렴한 價格으로 供給을 하겠다라

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서울大公園이 얼마를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좀더 市民에게 가까운 原則을 분명하게 設定을 하셔서 委託 販賣施設은 公開入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公開入札을 하되 저는 앞으로, 단지 來年度事業에 대해서 公開入札을 하는 것만 가지고 골머리를 썩지 마시고 長期的으로 보시고 이 公開入札을 했을 때 市民들이 과연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는 많은 委員님들이 아까 그런 質疑를 하셨는데, 아까 朴委員님도 그런 質疑를 하셨고. 市民들이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서울大公園에서 항상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흔히 하는 市民 ombudsman제도 같은, 요즘 高速道路를 타고 가도 톨게이트에서 交通法規 違反車輛 申告를 받는 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市民들 상호간에 監視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적어도 서울大公園에 이런 施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서울大公園 運營을 하는 데 있어서 市民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서울市民들이 每年 한 사람당 1,000원씩, 갓난아기부터 아주 老人들까지 한 사람당 1,000원씩 年間 돈을 들여서 서울大公園을 維持 管理할 責任이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 會議 序頭에 우리 所長님께서 外國을 가보니까 外國의 都市公園들은 대체적으로 市民들이 株主意識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앞으로 서울大公園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意識을 심어 줄 수 있는 事業計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市民들이 1,000원씩 냈지만 아, 이것이 國民株구나, 市民들이 1,000원씩 모아서 우리가 赤字나는 부분을 메워주고 있구나

라는 意識을 가진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면 서울大公園을 찾는 市民들이 무엇이 불편한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당연한, 그것은 아주 豫算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節次는 당연히 制度的으로 갖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委託販賣施設부터 示範的으로 公開入札을 하되 그 公開入札 이후에 대한 평가를 市民의 意見과 그리고 수시로 監査할 수 있는 制度를 두어서 公開入札에 대한 평가를 制度的으로 보장을 한다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委託販賣施設부터 시작해서 서울大公園 전체의 運營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는 市民들의 목소리가 반영 될 수 있는 制度的 장치들을 서울大公園에서 확보를 하셔서 施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님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市議會에서 速記錄이 나오면 所長님 보시나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안 봤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정리가 죽 되면 所長님 체크를 하시나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委員님 말씀을 체크해서 檢討합니다, 다음 會議 때 報告드려야 되니까.

○李康珍 委員;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3代 때 會議의 速記錄에서 所長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심정입니다, 이런 對答들이 계속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委員님들이 質問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거

기에서 크게 범주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뭐냐, 하나도 是正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是正이 안 되었든, 이 業務報告書에 반영이 안 돼있든, 우리가 또 9월에 臨時會議을 하게 될 텐데 그 때도 또 이런 業務報告가 올라온다면 그것은 정말 답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서울大公園이 換骨奪胎하고 거듭난다라는 각오로 임하기 위해서는 정말 市議會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톡 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業務報告와 그런 質問에 대한 答辯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勤務하시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 서울大公園은 所長님 혼자서 責任지고 管理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所長님이 모든 세세한 것을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委員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資料, 저런 資料를 보셔서 세세한 것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오시는데 서울大公園의 所長은 그것을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뒤에 陪席하신 분들이 여기 형식상 陪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 所長의 答辯事項에 대해서 메모를 부지런히 올려서라도 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具哲會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것중에 所長님과 그 外 職員간의 불협화음이 없냐는 이런 質問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서울大公園에 勤務하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質問 나온 것 자체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挽回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換骨奪胎하신다는 심정으로 勤務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후로 저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서울大公園을 방문을 하든 아니든 都市整備委員會 事務室에서 常任委員會를 하든 앞으로는 이런 會議의 방식들은 止揚이 되고, 정말 都市整備委員會에서 많은 부분들이 都市計劃과 주로 개인의 財産侵害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다면 서울大公園에 대한 常任委員會를 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휴식의 공간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꾸릴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고 相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錫浩; 李容富 委員님 같은 내용입니까?

○李容富 委員; 같은 내용에 대해서만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質問해 주세요.

○李容富 委員; 李容富 委員입니다.

우리 所長님께 質疑를 하나 하겠습니다. 3페이지 公園施設 중에서 서울랜드, 북돌이동산, 리프트카 問題는 여러 委員님들이 質疑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같이 資料를 活用하면 되겠고, 이 事項 중에서 現代美術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現代美術館의 管理部署가 文體部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이 美術館을 運營하는 전반적인 주체가 文體部 要員들로서 管理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大公園의 T/O상에 있는 283名 중에서 몇 사람이 現代美術館에 派遣勤務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저희들 人員은 전혀 나간 바 없고, 저희들하고 전혀 無關합니다.

○李容富 委員;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혹시 이 외에 서울大公園 內에 있는 施設 중에서 서울시가 管理하고 있는 것 외에 中央部署가 管掌하고 있는, 文體部 外에 管理하고 있는 施設이 또 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없습니다.

○李容富 委員; 없습니까, 분명하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李容富 委員;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便宜施設 내지는 慰樂施設이 事業開始 後에 監査院 내지 自體監査에서 指摘事項이 혹시 있었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慰樂施設, 서울랜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運營實態나 이런 데 대해서 監査는 民間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容富 委員; 아니, 民間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都市公園法에 의하면 契約書 자체를 서울시長이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서울시長과 契約하고 있죠.

○李容富 委員; 서울시長하고 契約書에서 契約을 違反한 사실이 既已 드러나 있는데 대원, 동산, 형민관광, 돌고래휴게소, 연도산업, 이 業者들이 入札을 받아서 이 業者가 運營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業者가 直營하지 않고 第2, 第3의 業者들이 들어와서 현재 經營을 하고 있다면 이 자체가 都市公園法의 契約違反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事項들이 전혀 監査院 監査 내지는 自體監査에서 摘發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委員長 金錫浩; 내용은 뭐냐면,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委員長 金錫浩; 李所長, 아까 同僚委員이 똑같은 얘기 質問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안다면 정확히 答辯을 하고, 곤란할 것 같으면 書面答辯 諒解를 구한다든지 확실하게 태도 표명을 분명히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용이 어떤 형태든 所長은 監査院 監査나 그 외의 其他 監査에서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所長은 이미 認知하고 있잖아.

왜, 契約上 違背가 됐다는 것은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措置할 것인가 하는 問題도 指摘했고, 또 李容富 委員께서는 監査院에서, 또 아니면 기타 機關에서 摘出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 물어보잖아요. 안 됐으면 안 됐다, 됐으면 됐다, 指摘事項이 없으면 없다 확실하게 하세요. 자꾸 혼자 다 아는 것 마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알겠습니다.

摘出된 바는 없습니다. 단 隨意契約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한번 通報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不法轉賣가 書類上은 없으니까 指摘된 바는 없는데 隨意契約은 하지마라 그런 것 한번 指摘받은 적 있습니다.

○李容富 委員; 指摘받은 時期가 언제쯤입니까?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찾아서 報告드리겠습니다.

○李容富 委員; 그러면 法律的으로 중대한 契約의 違反, 그러한 問題를 指摘 당하고도 지금 時點을 제가 報告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事後 責任問題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그 事項에 대해서 慰樂施設, 販賣施設에 대한 監査院 내지 自體監査 指摘事項이 없다고 答辯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隨意契約을 하지 말라는 指摘事項, 이것은 그냥 口頭로 通報받으셨나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제가 確認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李容富 委員; 委員들이 質問을 하면 성실하게 答辯하세요. 없다고 했다가 다시 있다고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千百萬 서울市民의 쾌적한 환경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意志는 대단히 좋은데 지금 所長님께서 答辯하신 內容을 들어보면 同僚委員 내지는 本委員이 質疑한 答辯에서조차도 우문서답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答辯 좀 해주세요.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錫浩; 아니, 指摘事項이 監査하면서의 指摘事項을 지금 質問했잖아요.

○李容富 委員; 제가 다시 한 번 質疑하겠습니다.

긴장을 푸세요. 긴장을 푸시고, 우리 同僚委員들이 業務報告 받으면서 所長 이하 全職員들을 우리가 監査하는 次元에서 지금 質疑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業務報告 事項에 대해서 궁금한 事項을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 事項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나 하나 答辯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職員들 말이죠, 어느 部長 파트예요? 일어나 봐요.

部長말이야, 이것 우리 委員 나온다는 소리 언제 들었어요?

당신 건강관리하러 오는 데야, 여기가? 千百萬 市民들의 民願이 모아진 데야.

정신들 나갔어!

○管理部長 金盛達;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錫浩; 최소한 監査院 指摘事項은 평생을 잊지 못하는 이러한 事項이라고. 所長이 옆에서 答辯하는데 자꾸 서브를 해 줘야지 무슨, 정신들 나갔어! 答辯해요, 빨리.

○管理部長 金盛達; 監査院 指摘事項은 없고 本廳 監査에 指摘事項이 있습니다.

○李容富 委員; 그러면 職責이 무엇이죠, 答辯하시는 분?

○管理部長 金盛達; 管理部長입니다.

○李容富 委員; 管理部長에게 묻겠습니다. 自體監査의 指摘은 언제 당하셨나요? 本廳 監査指摘을 언제 당하셨냐고요.

年度만 말씀해 주세요.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하셔도 됩니다.

○管理部長 金盛達; 최근에는 없고, 아마 몇 年度 前에 있었던 것입니다.

○金周喆 委員; 아니, 自體監査를 언제 했는지 몇 月에, 대개 1년에 하면 언제쯤 自體監査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管理部長 金盛達; 昨年에는 本廳監査를 안 받았고요, 한 2年 前에 받았는데.....

○朴贊國 委員; 그때 勤務를 안하셔서 잘 모른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確認 못해 죄송합니다. 委員님, 양해해 주시면 確認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李容富 委員; 제가 質問한 要旨는 이렇습니다.

自體監査에 指摘을 당했던 監査院 監査에서 指摘을 당했던 이러한 事項들이 再發되지 않고 서울大公園이 지금 283名 全職員이 一心同體가 되어서 우리 首都 市民들을 위해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정말 그야말로 市民의 휴식처로 이렇게 提供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努力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防止하기 위한 하나의 制度的인 裝置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위해서 本委員이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事項을 유념해 주시고, 本委員이 質疑한 事項을 書面으로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長 李龍宰;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所管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千百萬 市民의 목소리다, 意見이다 하는 것을 所長 以下 全 職員들은 유념해 주세요. 所長 한 분의 意志만 가지고 公園을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委員께서 많은 代案을 提示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代案을 提示하였지만 특히 우리 김장주 委員께서는 肯定과 不正에 대해서 提示하였어요. 傷痍軍警會는 報勳處에서 特惠를 부여받으면서 또한 保護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大公園에서 많은 特惠를 줍니다. 그러면 傷痍軍警會는 二重特惠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指摘事項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代案을 또 提示를 했습니다.

所長님께서 1994年度 5월에 赴任하여 1個月만에 그 동안 누구도 손 대지 못한, 엄두도 내지 못한 야시장을 撤去한 것

에 대해서 우리 同僚委員들이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점은 선별하면서 是正事項과 措置事項을 선별하며 우리 委員들은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代案을 提示하고 있습니다.

오늘 同僚委員들이 資料를 토대로 또 살펴보고 판단했습니다만 서울大公園, 바로 5共의 잔재입니다. 5共 人士들이 便法을 써서 利權事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産室입니다.

所長, 所長과 같은 확고한 意志를 가지고 있는 公職者가 말이야 그러한 잔재에 깊이 휩쓸려 넘어갈 것이지요? 언제까지 이런 5共의 잔재가 여기까지 넘어갈 것이지요. 고리를 끊어 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많은 委員들이 의욕을 가지고 오늘 많은 代案을 提示해 주고, 또 그 意志에 대해서 찬사를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기 勤務하는 公職者들 말이죠, 자세가 뭐니까? 앞으로 더욱더 時代의 흐름에 따라서 公職者의 자세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努力하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監査가 있습니다. 이때를 對備해서 더욱더 뭔가 千百萬 市民을 위해서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남겨놓기를, 거듭 부탁을 所長 以下 職員들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議事進行에 적극 협조해 주신 委員 여러분과 關係 公務員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49分 散會)

○出席委員

金錫浩 金洛淳 白懿宗 具哲會

김장주 金周喆 朴相根 朴洙桓
朴贊國 宋宗燮 柳德烈 李康珍
李容富 趙旬衡 홍진구 李斗鶴

○專門委員

宋在璫

○出席公務員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

所長 李龍宰

管理部長 金盛達

動物部長 金正萬

植物部長 李會鳳